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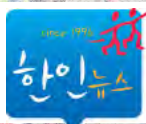
한인뉴스



VOL. 231

haninnewsinni@gmail.com

한국-인도네시아 광복70주년 특집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JALAN SEHAT UNTUK PERSAHABATAN INDONESIA-KOREA 2015

HUT KE-70 KEMERDEKAAN REPUBLIK INDONESIA DAN KOREA

한국-인도네시아 광복 70주년



SAMSUNG Galaxy Note5



The fastest way to capture your idea

Off-Screen Memo Feature

NEXT IS NOW

Customer service: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인천	KE628	2205	0705 ⁺¹	매일
	KE626	0750	1655	월,목,일
인천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KE625	1925	0035 ⁺¹	수,토,일

*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 Korean Air office closest to you
Jakarta :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OTTE SHOPPING AVENUE
New Shopping Paradigm

*Autumn paints in colors
that summer has never seen...*



Join Now!
LOTTE Member Cards

IT'S

9월 24일 ~ 27일

PAYDAY

up to 70% + ADDITIONAL 10% OFF + 10% CASH BACK

FASHION BAZAAR 8월 17일 ~ 9월 13일

up to 80%

MAP FASHION

Dezigual.

BEN SHERMAN®

TRUE RELIGION™

& many more...

for all mankind®

hoss
INTROPIA

M&S
MARKS & SPENCER

EVENT 9월 5일 ~ 20일

PARK Jo-Yoo

WOOD WORKING SCULPTURE



9월 4일 ~ 10월 4일



EXIBITION



NOW OPEN 9월 5일 ~ 20일

heel'n'tote

밀라노, 런던 등 글로벌 Shoes & Bags 컬렉션을 만나보세요.

WWW.HEELNTOTE.COM

rouge&lounge

PLAY
NOMORE

lapalette
colored wit o'collection

SOPHIE HULME

LOVE
MOSCHINO

HELENA&KRISTIE

& many more...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한국-인도네시아 광복 70주년 걷기대회
(자카르타 수디르만 글로라 봉카르노)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adoodle]

차례.....6

광복70주년 기념 걷기행사.....8

논설위원칼럼/ 경제패권
<김문환 논설위원>.....26

이모저모 한인사회.....28

하나되는 우리
광복절경축식
박근혜대통령 축사

잡지를 만드는 일은 이미지를 찾는 일입니다.
사진은 글을 생략할 수 있게 해주고
현장성이라는 특징 탓에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이미지란 편파적일 수도,
가치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억을 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한인뉴스 9월호를 광복절 특집으로 꾸미면서
많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그날을 떠올리며
상기된 서로의 모습에서
왠지 미소가 지어 집니다.
그것으로 이 이미지들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장 홍석영

광복절축하행사 감동수기 수상작/
우리 함께, Kita Bersahabat <김일순>.....34

자타르타를 수놓은 태극물결
<최우호>.....35

인니 할랄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2015 파콘아시아
경북-족자주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NEW.FUTURE
남북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
CSR 포럼
바탕이야기
LG 상사, 사랑의 다리
제1회 인도네시아 국제 발레 갈라쇼
KOICA소식
2015 국제도서전
JIS소식
제6회 인터넷 문학상 시상식

집중!여기/CGVblitz.....52

나의 꿈은 xxx 입니다 <이연주>
박정자시인의 사진읽기.....57

8월의 경제 브리핑.....58

지상갤러리 / 요한 베르메르
(저울을 든 여인) <김선옥>.....60

8월의 행복에세이<서미숙>.....62

모럴 다이어트2<범상규>.....65

Jalan Jalan Jakarta / Glodok <사공경>.....70

법률해설 / 외국인 인력고용에 관
한 신 노동부 장관령(2) <이승민>.....72

드라마로 배우는 BAHASA <허영순>.....74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화 : (021) 521-2515, 527-2054 / 팩스 : (021) 526-8444
주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광복 70주년기념 걷기행사



16일,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조태영)과 한인회 (회장 신기엽)는 자카르타특별주 정부와 함께 광복절을 경축하는 ‘광복 70주년기념 걷기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 한명숙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신기엽 한인회장, 자룻 사이폴 자카르타특별주 부지사를 비롯한 한인동포와 인도네시아인 약 6000여명이 참석해, 양국 국민이 함께 자카르타 중심 도로를 걸으며 기쁨을 나누고 광복과 호국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1부 광복 기념 행진, 2부 광복경축행사, 3부 경품추첨 행사 및 축하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른 아침 5시 30분경 출발지인 플라자 슬라판에 모인 참가자들은 양 국가 국민체조 후, 자카르타 주지사의 출발 선언과 기념 행진이 시작됐다. 행진이 끝난 후, 양국 대표의 환영사, 걷기대회, 경축 이벤트, 공연 및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독립된 조국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이 공동으로 광복절을 경축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개회식을 통해 “오늘은 양국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날”이며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첫 광복절 행사로써 의미가 깊고, 양국의 우정이 돈뚫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합을 기원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한명숙 전 총리는 “양국의 광복을 축하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걸으니 인도네시아의 발전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양국의 우호관계가 더욱 좋아지길 바라며 양국관계발전을 위해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엽 한인 회장은 “참석해주신 한인 동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행사였다고 자평한다. 앞으로도 함께 가는 열린 한인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행사를 위해 수고한 출연자, 한인회 임원단, 봉사자들에 깊은 감사인사를 전했다.





자룻 사이폴 자카르타특별주 부지사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광복직후 약소국에서 벗어나 강대국으로 거듭나고 있으니 광복 70주년을 함께 맞이하는 뜻 깊은 행사를 통해 더욱더 협력해 나가자” 고 말하며 행사에 참여한 양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걷기행사에 참가했던 송원경(15세, SPH) 학생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광복절에 대해 더 깊고 자세하게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다” 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태권도 공연을 할 때는 한국인으로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고 행사에 참가한 소감을 말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한지 3년째 접어든다는 김재경(35)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애국가를 부르니 가슴이 뭉클하고 감회가 새롭다” 고 말했다.

한인회는 SEMBAKO 50세트와 헬멧 300개를 지역주민에게 전달했으며,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으로 티셔츠, 모자, 양국기, 기념 타올, 빵 등을 나눠줬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교민들과 현지인들이 한자리에 한뜻으로 모여 조국 광복의 역사를 기념할 수 있음에 큰 의의를 두며,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준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보며 다가올 희망의 새 시대의 힘찬 도약을 기원한다. 2부는 봉카르노 경기장 입구에 마련된 무대에서 양국 홍보 동영상, 양국 국가 제창, 본직 축사, Djarot 부지사 축사, 한명숙 의원의 축사, 자카르타 주정부에 대한 한인회의 헬멧 등 기증식, 인도네시아 태권도 대표단의 태권도 시범, 인도네시아 전통 무용, 국악사랑과 한바패의 사물놀이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참석한 한 인니 관객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동 공연을 즐겼다.





1부에는 연세대 원영신교수 창작의 진도아리랑 체조와 K pop 체조로 몸을 풀고 한결 가벼워진 상태로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2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 한 켠에서는 한국문화원이 준비한 한복 캐릭터 포토존,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이 이루어졌는 바,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참여하였다.



3부는 현지 진출 우리기업이 기증한 TV, 핸드폰, 한국 왕복여행권 등 경품 추첨을 하였으며, 막간에 반동 한사모 및 인니 댄스팀의 K-POP댄스와 부채춤, 국악사랑회의 공연, 한인 동포의 색소폰 연주 등으로 흥을 돋구었다.



또한 이날 행사를 위해 KORINDO 등 진출기업, KEB하나은행 등 많은 우리 기업, 한인 동포, 대사관의 후원으로 참석자들에게 티셔츠, 모자, 양국기, 인형 등을 무료로 나누어 주고 롯데마트는 생수(2만4천병)을 제공하였다.





동 행사에 우리 동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조태영 대사는 재인도네시아 KBS WORLD TV(OKTN)와 사전 인터뷰를 하였고, 대사관과 한인회는 홈페이지 게시, 유·무선통신, SNS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인단체, 업종별 협의회, 기업 대표, 향우회, 종교 단체에 홍보하여 예상보다 많은 2,500여명의 우리 동포가 참석하는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조태영 대사는 행사 현장에서 주재국의 Trans TV 등 3개 방송사와 각각 인터뷰를 하였다.

인니 언론매체인 Satu Nusantara, Gulalives, Iyaa.Com은 각각 “인니-한국 광복 70주년”, “인니- 한국 건강걷기 행사 활기”, “인니-한국 친선 건강 걷기 성황”이라는 제목으로 동 행사를 보도하였고, 한인 언론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처음으로 광복을 공동 축하하는 역사적인 행사라고 보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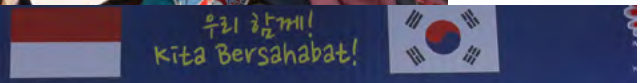








우리 함께!
Kita Bersahabat!









나도 한 컷!



안녕하십니까 황미리입니다.
 본인은 광복 70주년 기념 한·인니 경축 걷기행사에서 차세대 옥
 타회원으로서, 인니 1.5세대로 준비작업부터 걷기 피켓작업을 동
 행했습니다.
 사실상 1994년부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여 유년시절을 이땅
 에서 보냈지만 지난 걷기행사때 처럼 진정 나의 고향처럼 느껴
 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드리만의 Car Free Day에도 교회를 이유로 단한번도 걸었
 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카르타는 물이외엔 걸을 곳이 없
 다는 푸념만 했지 정작 자카르타주 시민이 동참하는 Car Free
 Day엔 참여한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양국의 광복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행사에 한면에는 태극
 기가 다른 한면에는 Sang Merah Putih가 그려진 깃발을 들
 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우리는 친구입니다(Kita bersahabat
 Indonesia dan Korea) 라는 피켓을 들고 양국의 인파가 함께
 걷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이 없었는데 여러지인분들이 시간이 지
 남에 따라 한장씩 보내주신 걷기행사 인증샷을 사진공모에 올
 려봅니다. 특히 지나가다 함께 사진을 찍자고 살갑게 다가온
 인도네시아인들과의 인증샷도 있어 올려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민주평통동남아 남부협의회제공 한국왕복티켓 및 제주 패키지 투어 상품 수상자와 기념촬영



감사의 말씀

뜻 깊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본 한인회와 한국대사관, 자카르타 주정부가 공동기획하여 한인사회 최초로 개최한 양국 국민의 광복경축 걷기행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참여열기로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광복과 주권회복의 기쁨과 감동을 이국 땅에서 다시 느껴보고자 참여한 한인동포는 2500여명, 인도네시아인이 3500여명 모두 6000여명의 인파가 운집했던 이번 행사장은 한인사회의 뜨거운 열정이 바탕이 된 결집력과 한인사회의 거대한 저력을 확인하게 되는 가슴 벅찬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양 국가 간의 우의가 돈독히 다져짐은 물론 금번 행사를 양국 국민이 협력하여 성공리에 치름으로써, 1973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을 토대로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발전시켜온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성원을 보내주신 한국대사관, 자카르타주정부와 산하 유관기관, 후원 및 협찬사, 재능기부를 하여주신 출연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화합과 소통,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한인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뜻하시는 일 모두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한·인니 광복 70주년 경축 기념 행사 후원 및 협찬사

번호	회사·단체명	대표자	금액(Rp)
1	KORINDO GROUP	승은호	200,000,000
2	PT. BANK KEB HANA	이재학	100,000,000
3	PT. KIDECO JAYA AGUNG	이창훈	100,000,000
4	PT. LOTTE MART INDONESIA	김영균	100,000,000
5	PT. POSCO INDONESIA	김지용	100,000,000
6	PT. TEBO AGUNG INTERNATIONAL	배상경	100,000,000
7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조태영	US\$1,900
8	PT. HANINDO EXPRESS UTAMA	신기업	50,000,000
9	KMK GLOBAL SPORTS	송창근	50,000,000
10	PT. J S K	장상규	50,000,000
11	PT. PARKLAND WORLD INDONESIA	신만기	50,000,000
12	PT. PRATAMA ABADI INDUSTRI	서영울	50,000,000
13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송창근	30,000,000
14	PT. DONG JUNG	조규철	30,000,000
15	재인도네시아모발협의회	김영울	20,000,000
16	재인도네시아봉제협의회	김종림	20,000,000
17	재인도네시아완구협의회	이종현	20,000,000
18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차상만	20,000,000
19	PT. KUMKANG INDONESIA	윤창식	20,000,000
20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박현순	10,000,000
21	재인도네시아족자한인회	박병엽	10,000,000
22	재인도네시아한국신발협의회	신만기	10,000,000
23	PT. COSMOS INK	송판원	10,000,000
24	PT. DONG SUNG	김재유	10,000,000
25	PT. SUNG CHANG INDONESIA	김영울	10,000,000
26	양정고등학교 동문회	김현재	5,000,000
27	PT. DEWA CITRA SEJATI	김영주	2,000,000
28	PT. MISUNG INDONESIA	김병철	2,000,000
총 금액			Rp1,179,000,000.00
			US\$1,900

한.인니 광복 70주년 경축 기념 행사 후원 및 협찬사

번호	회사·단체명	대표자	상품명	수량/금액
1	제주특별자치도청	원희룡	한국왕복 티켓 및 제주 패키지 투어	2매
2	민주평통동남아남부협의회	전민식	한국왕복 티켓 및 제주 패키지 투어	1매
3	재인도네시아봉제협의회	김종림	티셔츠	2000벌
4	재인도네시아완구협의회	이종현	인형	2200개
5	PT. BANK WOORI SAUDARA IND.	김동수	LED TV 40인치	1개
6	PT. BUSAN LASER INDONESIA	김경옥	쿠쿠밥솥	5개
7	PT. CIPTA ORION METAL	김준규	가스 조절기	90개
8	PT. GAYA INDAH KHARISMA	김영욱	VIP 티셔츠	32벌
9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차상만	커피세트	5세트
10	PT. HANKOOK TIRE	김재희	타이어	5세트
11	PT. HANWHA LIFE	현정섭	오토바이 헬멧	200개
12	PT. KOIN BUMI	김우재	상품권	Rp 1천만
13	PT. KUMKANG INDONESIA	윤창식	남·여 캐주얼화	10족
14	PT. LEJEL HOME SHOPPING	유국종	해피콜 더블 팬	50개
15	PT. LEO KORINSIA	이종현	대형완구	2개
16	PT. LG ELECTRONICS INDONESIA	이재형	휴대폰	10개
17			컴퓨터 모니터 23인치	2개
18			블루투스 스피커	5개
19			포켓 포토	3개
20	PT. LOTTE MART INDONESIA	김영균	Lotte Mart Save L 생수	24,000개
21	PT. PACKINDO UTAMA	강영균	오토바이 헬멧	100개
22	PT.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	김유영	공기 청정기	2대
23			LCD TV 40인치	1대
24			Galaxy 6 Edge	1개
25			Galaxy Note 4	1개
26			Galaxy A3	3개
27			Galaxy Tab 3V	2개



경제패권

김문환/논설위원

1958년 1월 20일 후지야마 아이지로(藤山愛一郎) 일본외상과 수반드리오(Subandrio)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사이에 대일청구권협상이 조인되어, 인도네시아는 무상 223.08백만불외에 상업차관 80백만불 규모의 배상금을 수혜받게 된다. 특히 배상금 223.08백만불은 12년 분할로 지불되어 수카르노 정권 말기 7년 동안의 인도네시아의 경제지도는 온통 일본 시행사들이 들고 들어온 일장기로 뒤덮이게 된다. 팜린가에 세워진 호텔인 인도네시아, 사리나 백화점, 그리고 위스마 누산따라 외에 발리, 족자, 뿔라부한 라뚜 등 관광지에 세워진 딜럭스 호텔들이 대표적인 형상물로 모습을 드러낸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고도경제성장을 구가하던 1970년대, 일본정부는 대외원조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여, 1974년 외무성 산하의 준정부조직인 국제협력청(JICA)을 설립하였고, 2003년에 들어와 이 조직은 대폭 손질되어 'New JICA'로 거듭나게 된다. 이 기구는 현재 85억불에 달하는 자금을 운영하며 세계 97개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150개국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협력단(KOICA)이 이와 유사한 기구인 셈이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대장성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제공을 주목적으로 1999년 10월 일본수출입은행(JEXIM)과 국제협력기금(OECF)을 합병하여 국제협력은행(JBIC)을 설립하여 외국투자자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외국국가와 일본정부와의 경제협력과 일본수출입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의 수출입은행인 셈이다.

지금 자카르타에선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자카르타-반둥 간 전장 140~150킬로미터의 고속철도건설사업 수주를 놓고 필사적인 경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0일 중국국가개발개혁위원회 주 샤오시 회장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할 때 중국은 인프라건설을 위해 추가로 1,000억불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미끼를 던지자, 인도네시아측은 Bluebook 및 PPP book 리스트를 제출하겠다고 화답할 때만 해도 중국 쪽으로 기우는 듯 하던 전세가 8월 26일 아베 총리 친서를 들고 긴급 내방한 이주미 히로또 특사가 조꼬위 대통령을 예방하여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소식이 새어 나오자, 이를 참지 못한 중국대사가 이틀 후엔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장관을 만난 후, 다소 안도 섞인 표정을 짓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일본정부는 62억불이 소요되는 맘모스 프로젝트의 자

금을 국제협력청(JICA)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입찰 마감일인 8월 31일 이후 양측의 제안을 평가하는 독립기관으로는 보스턴 컨설팅그룹이 지정되었고, 인도네시아 역대 최대 투자프로젝트인 고속철 입찰결과를 앞두고 이제 자존심이 걸려있는 운명의 시각은 다가오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100여킬로 떨어진 찰레곤 공업지역에선 또 다른 국지전이 일본과 한국기업간에 벌어지고 있다. 2013년말 준공된 포스코측의 제1단계 일관제철소건설 다음 목표로 계획되었던 제2단계 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꼬라까따우 스틸사는 신일본제철사와 합작으로 자동차강판 품목을 생산하는 공장건설을 8월 25일 착공하였고, 오사카 스틸사와는 80% 대 20%의 합작비율로 2억 2천만불을 투자하여 연산 50만톤 규모의 건축용 철재를 생산하는 공장설립(PT. Krakatau Osaka Steel)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보도가 언론에 비치고 있다.

한편 토지수용 문제로 4년간 지연되어 왔던 중부자와 바땅화력발전소(PLTU Batang)는 대통령직접 팔걸고 나서 조만간 기공식에 들어갈 전망이다. 일본 종합상사인 이토추사와 발전사인 J-Power가 인도네시아 선두 광업사인 아다로사

와 함께 콘소시엄을 맺어 진행되는 이 발전소는 2,000 메가와트 규모이며, 약 40억불이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조달은 JBIC가 담당한다.

최근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1,000억불 규모의 자본금으로 50개국이 서명을 마친 가운데 출범하여 일본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대칭되고 있는가 하면, 남중국해분쟁 와중에서 중국의 헤게모니 쟁탈 의도가 역력해지자, 일본은 필리핀과 안보협약을 체결하여 맞불을 지르고 있다.

이와 같이 작금의 인도네시아 경제는 중,일 경제양대국의 각축장으로 변모되고 있다. 특히 인프라 투자 부문에선 여타 국가들이 근접하기 힘든 대규모 자본력을 무기로 한치의 양보 없는 경제전쟁의 양상을 띄고 있다. 일본의 자금제공기관인 JBIC, JICA와 같은 유사조직을 모두 갖추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규모 프로젝트 경쟁 측면에서 역부족일 수 있다.

그렇다고 두 거인의 싸움을 구경만 하고 방관할 수만은 없다. 지열, 화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에서 우리의 자금력과 기술력에 상응하는 경쟁우위의 틈새를 찾아 소문 없이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한국대사관, 한국 문화 전도사 ‘한사모’ 초청 행사 펼쳐 하나되는 우리! Ayo kita bersatu!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대사 조태영)은 6일 반둥의 ‘한사모(한국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70명을 대사관으로 초청하여 격려하고, 환영 오찬 및 한국 영화를 관람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한국 관련 행사 뿐만 아니라 현지의 각종 행사에서 한국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한사모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조태영 대사의 적극적인 초청으로 이뤄졌다.

조태영 대사와 신기엽 한인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한사모의 활동을 알리는 프리젠테이션, 아리랑 댄스와 K-POP 댄스 공연이 펼쳐졌다. 이에 조태영 대사와 신기엽 한인회장은 인도네시아 노래로 화답하여 한사모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한-인니 미디어 매체의 큰 관심을 받았다.

조태영 대사는 “한사모의 다양한 활동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며 “한-인니 양국 민간외교 차원의 모범 사례이며 앞으로도 더 왕성한 활동을 바란다” 고 부탁했다.

한사모 회장 Sani씨는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 며 “한사모는 인도네시아에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 커뮤니티에는 순다(Sunda) 지역의 문화를 알리고 싶다” 는 포부를 밝혔다. 한인회에서는 운동화 75족을 선물로 준비하였다.

* 한사모 (한국을 사랑하는 모임)

2006년에 반둥에서 만들어진 민간단체 모임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문화를 즐기는 대학생, 직장인 등 주축으로 결성되어 현재 1,800여명의 회원이 활동. 한국어 학습, 전통 춤, K-POP 댄스, K-POP 보컬, 브레이크 댄스 등을 통해 한국을 알리고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모임이다.



대한민국의 광복을 축하하는 만세 소리가 퍼졌다



15일, 재인도네시아 대사관(대사 조태영)은 ‘광복 70주년 경축식’을 대사관 1층 강당에서 열어 광복의 의미와 순국선열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태영 대사, 신기업 한인회 회장, 송창근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대사관 직원, 한인동포 등 50여 명이 참가하여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경축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되새겼다.

이날 기념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내빈소개 △대통령 경축사(대사대독) △축사(신기업 한인회 회장) △광복절 노래제창 △만세삼창(김병철 한인회 자문위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태영 대사는 박근혜 대통령 축사 대독을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시대적 요구이

자 대안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날개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과 교육개혁 등의 ‘4대 개혁’을 완수하여 미래세대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광복은 민족의 통일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내려놓고, 생명과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 동참하고, 민간차원의 문화와 체육교류를 통해 남과 북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자”며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가야할 과제이고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강조했다.

신기업 한인회장은 “역사적이고 뜻 깊은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모든 것을 바쳐 독립된 나라와 불굴의 민족혼을 물려주신 애국선열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국가의 존속과 안녕을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

고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남북한 관계가 더욱 활성화되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통일이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행사 참석자들은 공식 일정이 끝나고 한인회가 정성껏 마련한 다과를 함께하며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 광복 70주년 축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70년 전 오늘의 벽찬 감동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누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년은 대한민국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참으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70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독립을 향한 열망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마침내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순국선열들의 불굴의 의지와 애국심은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67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정통성을 계승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항구적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기다렸던 광복의 기쁨은 반쪽의 기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분단의 비극과 6.25 전쟁의 참화는 우리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갔고, 얼마 되지 않던 산업기반마저 모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힘으로 새로운 도약을 일궈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었지만, 황량한 모래벌판에 제철소와 조선소를 세웠고, 모진 난관을 뚫고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고, 수출규모 세계 6위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국가 중에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는 소위 ‘5030 클럽’ 국가



는 지구상에 여섯 나라뿐입니다. 저는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일곱 번째 5030 클럽 국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신장된 경제력과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최초의 나라가 되었고,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면서, 번영을 이루려는 많은 나라들의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강의 기적으로 부르는 대한민국 성취의 역사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 불굴의 도전정신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불굴의 의지로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써온 우리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 70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시대적 요구이자 대안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날개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창조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이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달에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터가 모두 구축되어 이제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고 수준의 창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혁신 주체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들과 특화산업을 키워내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미 4,600여명이 멘토링을 받고 200여개의 기업을 보육하고 있으며, 235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창조경제가 개인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갈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날개는 문화융성입니다. 문화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세계인을 하나로 만들고, 열광하게 하며,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무궁무진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문화영토 확장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찬란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의 급속한 발전도 그 근간에는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의 창의적 기질과 문화적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유구한 문화를 세계와 교류하며 새롭게 꽃피울 때, 새로운 도약의 문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문화를 재발견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서 산업

과 문화를 융합해서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 한 축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그 시작을 문화창조융합벨트로 열어갈 것입니다. 이제 오픈을 해서 각 문화인들의 입을 기다리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 문화와 아이디어, 기술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경제의 도약을 이끌 성장엔진이라면,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금융개혁과 교육개혁 등의 '4대 개혁'은 그 성장엔진에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토대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4대 개혁'을 완수해서,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나아갈 때, 개혁과 혁신의 험난한 여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대들이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듯이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뭉쳐서, 또 다른 도약의 역사를 이루어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은 광복과 함께 남북 분단 7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광복은 민족의 통일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남과 북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야 합니다.

최근 미국-쿠바 수교와 이란 핵협상 타결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는 변화와 협력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숙청을 강행하고 있고, 북한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깨뜨리고 남북간 통합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핵개발을 지속하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DMZ 지뢰 도발로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거래의 염원을 짓밟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도발과 위협은 고립과 파멸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민생향상과 경제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72년 남북한은 분단 역사상 최초로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남북간 대립과 갈등의 골은 지금보다 훨씬 깊었고, 한반도의 긴장도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남북한은 용기를 내어 마주 앉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분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도발과 핵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DMZ 도발을 겪으면서, DMZ에 새로운 평화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북한의 젊은 이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되어 있는 DMZ에, 하루속히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저는 취임 후,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에 생명과 평화의 공원을 만들자고 여러 차례 제안하고, 그 구상을 가다듬어 왔습니다.

이제 북한이 함께 첫 삽을 뜨는 일만 남았습니다.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고 남북간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면, 한반도 백두대간은 평화통일을 촉진하고 유라시아 차원의 협력을 실현하는 새로운 축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내려놓고, 생명과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70년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

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드리는 일에도 북한은 성의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부모없는 자식이 없듯이 북한의 지도자들도 이산의 한은 풀어주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 주길 바랍니다.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아무리 정세가 어렵고 이념이 대립한다고 해도, 인도적 건지에서 남북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6만여 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한 측에 일괄 전달할 것입니다. 북한도 이에 동참하여 남북 이산가족 명단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남북 이산가족들이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하여 수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한반도의 자연재해와 안전문제도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홍수나 가뭄, 전염병 등의 반복되는 문제에 일회적 상황관리로 대응하기보다는, 남북간 보건 의료와 안전협력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 보다 나은 길이 될 것입니다.

지난 번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과정에서 남북한은 개성공단의 검역 관리에 협력한 바 있고, 현재 금강산 산림재해 대응을 위해서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위생/수자원/산림관리를 비롯한 남북 공동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70년 분단으로 훼손된 민족의 동질성도 회복해야 합니다. 민간차원의 문화와 체육교류를 통해 남과 북이 만나고 마음을 열어간다면, 민족 동질성도 서서히 회복될 것입니다. 남북간 장벽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역사유적 발굴조사와 거래할 큰 사전 편찬 사업과 같은 학술 문화 교류, 축구와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교류는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 해외의 8천만 동포 여러분, 비록 북한의 거둬들인 도발로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

만, 광복 70주년을 맞는 역사의 길에서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면, 희망과 기적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기적’을 이뤄 낼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이룬 새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8천만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촉진하며,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구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의 장점을 결합하고, 한반도 교통망을 대륙으로 연결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경제권을 연계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통일의 꿈이 이루어진 광복 100주년을 내다 보며,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이루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협력과 공영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우호협력은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역사인식 문제에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되 두 나라간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호혜적 분야의 협력관계는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일본 내각이 밝혀온 역사 인식은 한?일 관계를 지탱해 온 근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제 있었던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는 우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는 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산증인들의 증언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준 점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한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밝힌 점을 주목합니다.

앞으로 일본이 이웃국가로써 열린 마음으로 동북아 평화를 나눌 수 있는 대열에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공언을 일관되고 성의 있는 행동으로 뒷받침하여,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합당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으나, 이제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양국의 위상에 걸맞게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공헌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년 전 오늘, 우리는 잃어버렸던 조국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불굴의 의지와 하나 된 마음으로 온갖 역경을 딛고 성취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왔습니다.

선대들의 애국심과 그 위대한 뜻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입니다.

저와 정부는 중단 없는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여 세계의 반열에 우뚝 설 수 있는 부강한 나라와 원칙이 바로선 투명한 나라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대응으로 통일시대의 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100년의 기적’을 완성하고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세계와 지구촌의 번영을 선도하고 문화로 인류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대상> **우리 함께, KITA BERSAHABAT**

김일순(찌까랑 거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 노래 한가락이 내 마음을 몽클함을 일으키게
한 하루....

2015 8월 16일 광복 70주년을 타국땅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맞이하는 인니 10년차 주부이다. 타국에 있으면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애국심이

더욱 깊어 진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만든 하루였다. 매년 직스에서 행사에 참여하였지만 이번만큼은 인니인들과 함께하는 광복 70주년 걷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새벽 바람을 가르며 찌까랑에서 출발하였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뜻있는 한국인과 인니인이 걷기 행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와 있었다. 나도 이곳 저곳을 바쁘게 기웃거리며 50대인 나이이건만 마음은 이미 20대로 돌아가 얼굴에 태극기 문양과 광복 70주년이라는 스티커도 붙이며 빠알간 모자와 티셔츠를 받아들고 또한 알팍한 심정으로 행운권도 조심



스레 기대하는 일반 주부인 것이 인정되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머금었다. 그래도 합류대열에 앞장서기 위하여 마음은 단단무장으로 준비하였다. 하늘엔 헬리캠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고 땅에서는 많은 행사 참여자들이 광복을 만끽하기 위하여 기다렸다. 드디어 각 두 나라가 준비한 체조로 몸을 풀 후 양국이 하나되어 함께 걸어가자며 우리나라 태극기와 적백기를 흔들며 개막이 선언되자 많은 참여자들은 함성으로 한마음이 되었다. 봉까르노 운동장은 이미 열기에 가득하였고 수디르만과 스망기를 거쳐 Pemuda 동상을 돌아오면서 우리는 인니들과 함께 “아리랑” 과 “독도는 우리땅” 을 원없이 불러 대었다. 또한 “우리 함께” “KITA BERSAHABAT” 이라는 슬로건은 자카르타 하늘에서 퍼붓는 땀별도 아랑곳 않는 듯 남녀노소 불문하고 걷기에 동참한 참여자들은 그 순간만큼은 한마음으로 광복의 달콤한 맛을 맘껏 즐기고 있었다. 역시 용맹스럽고 장한 독립 운동가 후손답게 우리는 쉬지 않고 잠시나마 독립운동가의

마음을 기리듯 곳곳이 태극기를 흔들며 행군을 하기 시작했다. 거리는 울긋 불긋 한. 인니 국기가 물결을 치고 이미 마음은 70여년전 광복을 만끽하는 듯 길거리에서의 흥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내 옆에 찬 만보기는 이미 1만보 이상의 숫자를 가르키고 있었다. 온몸은 비록 땀으로 범벅이 되어 끈적함으로 영광의 흔적으로 남았지만 마음은 가

뻘함 그 자체에 서로가 뿌듯한 흥분으로 가득찼다. 내 주위는 이미 활기찬 아우성으로 풍성함의 광복을 맞이하기에 충분하였다.

나는 타국에 10년차 주부이다.

과연 내가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흥분의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리고 타국인 인도네시아에 살면 살수록 우리 것을 더욱 알리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오곤 하였다. 그래서 나는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나는 우리가락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장구 한가락 한가락을 배우면서 더욱더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었고, 인도네시아 구석 구석 공연을 다니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민간외교관이란 생각으로 충실하게 우리 것을 알리고 있다.

“세계는 하나”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딜가도 많은 이들과 교감이 되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하늘에 흩날리는 우리가락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내가 되어 추억을 한 장 한 장 쌓여 내 가슴속에 한편의 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사랑하는 나 이기에 애국사랑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하고 싶다.

꼭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만 애국자가 아닌 이런 남들 눈에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우리 것을 알리며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것도 나름 나라사랑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도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북 가락으로 인니인들과 함께 자카르타 하늘에 아리랑을 뿌리고 돌아와 애국을 크게 한건 한 날이기에 또하나 추억의 한 장을 내 가슴속에 살포시 담아두었다.

<최우수상>

자카르타를 수놓은 태극물결

최우호(UI)

마치 태극문양을 연상케 하는 붉고 푸른 물결이 Plaza Senayan 일대를 수놓았다. 타향만리에서 열린 뜻 깊은 축제의 현장에서, 우리는 조국의 하늘아래에 있을 때 보다 더 뜨거운 심장과 두 눈동자로 어둠이 채 가지지 않은 자카르타의 아침을 밝히기 시작했다. 사람 울타리에 간혀 앞으로 걸여가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념 티셔츠, 모자, 땀수건, 생수, 그리고 태극기를 부족함 없이 나눠주는 한인회의 철저한 준비로 원활한 행사 진행이 이루어졌다. 필릭이는 태극기 아래,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가는 우리 동포들의 대단한 응집력에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는 마치 한일 축구경기를 앞둔 서울시청 앞 광장의 그것과 같았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간직하고, 같은 기쁨을 만끽한 나라인 만큼 수교한 1973년 9월 이례 양국이 한마음이 되어 가장 성대하게 치러진 행사라는데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걷기행사 전 순서로 축사를 듣고 두 나라의 국민체조를 하는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하나 되어 따라하는 모습이 나 빠고 모두 연습하고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 체조 후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의 소개 후 자카르타 자룻 부지사님의 걷기행사 개최선언에 2500여명에 달하는 우리 동포들과 3500명에 달하는 현지인들이 양손에 태극기와 적백기를 들고 붓물 터지듯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하늘에서 촬영용 드론이 날아다니고 행사장 일대의 교통을 통제하여 현지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큰 행사를 주최하고 실행에 옮긴 한인사회의 드높은 위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타향만리 낯선 곳에서의 삶이 외롭고 고단하지만 이 행사를 통해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조국을 잊지 않고, 우리 조국을 지킨 우리 조상들의 헌신을 기리며 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애국하겠다는 다짐했다.

물 흐르듯 흘러가는 인파속에서 많은 지인들을

만났다. 그리고 이런 행사에 별 관심 없을 것 같은 이미지의 학교 친구도 만났다. 일본인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 친구인데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되는 것 같다. 친구 말이 축구를 봐도 한일전만 보고 국기 게양은 광복절에만 하는데 이 행사에 꼭 참석하고 싶어서 한국에서의 휴가 일정도 줄이고 출국했다고 한다. 이 친구와 대화하면서 많이 놀랐다. 사실 개인적인 소견으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70년 전 그 감동을 잊은지 오래인 것 같다. 나 역시 “광복절 = 빨간날 = 절친의 생일”이란 공식이 세워져 있었다. 국기 게양도 잊어버리고 늦잠을 자고 친구생일 잔치에 가던 내 모습을 생각하니 얼굴이 빨갱게 달아오른다. 종종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으로 태극기가 시상대의 꼭 대기에 오르면 나도 모르게 가슴 뭉클해짐을 느끼며 축축이 젖은 눈매로 애국가를 따라 불렀기에 내 애국심이 대단할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다. 나도 앞으로 광복절만이라도 국기 게양을 하리라 다짐했다. 오늘 행사에 아빠, 엄마 손을 잡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열심히 걷는 아이들이 많이 보였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광복 80주년, 100주년이 될 때 지금의 어른들처럼 이런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가슴 뜨거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본다.

걷기대회가 끝난 후 아쉽게도 개인일정 때문에 2.3부 행사는 참가하지 못 했지만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게 역사적인 첫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또 더 나아가 이런 국제적인 우리들의 행사가 더 널리 알려져서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의식속에 녹아들어 바퀴벌레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은 일본어 잔재와 매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위안부문제, 그리고 일본 지배계층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들이 우리 국민뿐 아니라 국제적인 지지 속에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대한독립 만세!





인니 할랄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은 2015.8.6.(목)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할랄 시장과 관련하여 인니 할랄시장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태영 대사, 안선근 이슬람대 교수, 이성복 aT지사장을 비롯하여 권민희 롯데리아지사장, 김종현 무궁화 유통 사장, 대상 및 CJ 관계자 등 13명 참석하였다.

조태영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2억 5천만 명의 인구 중 87%가 무슬림인 최대의 이슬람국가이며, 인구증가와 소득수준 향상을 고려할 때 인니 할랄시장의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므로 우리 농·식품 수출의 주요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부터는 인니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류 등에 대해서 할랄인증이 의무화되는 등 관련제도가 강화되고 있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

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할랄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안선근 교수와 이성복 aT유통공사 지사장은 할랄의 역사적·문화적 의미와 현재 인니의 할랄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해 각각 설명하였으며,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권민희 롯데리아 사장, 정승인 대상 부장 등은 현지에서 할랄인증을 받으면서 느꼈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우리 정부차원의 한국내 할랄인증기관 설치지원과 이슬람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이슬람 전문가 양성 작업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조태영 대사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한국대사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조속히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 추진할 사항은 본국에 보고하여 인니 할랄시장 개척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니 할랄 가공식품 시장현황 (2009~2013)

USD 백만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가공식품	14,638.20	18,936.80	22,307.20	23,752.50	25,990.60	15.4%

* 출처 : Euromonitor Internation

인도네시아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축제! 한국문화원, K-애니메이션 키워드 확산

아시아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축제 ‘2015 팝콘 아시아 (POPCON ASIA 2015)’가 8월 7일부터 9일까지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렸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석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팝콘 아시아’에서 한국 콘텐츠 특별관을 운영하여 한국의 우수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콘텐츠를 인도네시아에 소개했다.

행사 기간 내 문화원 부스에서는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주)아이코닉스의 뽀로로와 타요, (재)강원정보 문화진흥원의 구름빵, (주)로이 비주얼의 로보카 폴리 등 인기 캐릭터를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SICAF 2015)의 홍보 부스와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 지사에서 준비한 한국문화·관광 홍보부스도 선보였다.

한국만화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기 위해 현지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만화 제작사 만화KITA(대표 김석) 소속 작가들은 메인 무대와 문화원 부스에서 만화 제작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그리고 KBS TV드라마로 제작된 원작 웹툰 ‘오렌지 마말레이드 (Orange Marmalade)’의 유명 작가 석우씨도 이번 행사를 통해 인니 팬들과 팬 사인회를 가졌다.

이 외에도 한국문화원은 한사모의 K-POP공연, 로보카 폴리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준비하여 관객들을 맞았다.

올해 팝콘 아시아는 ‘지역에서 세계로 (FROM LOCAL TO GLOBAL)’라는 주제로 아세안 국가들의 창조산업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주최측인 레바타(REVATA) 사는 이번 팝콘 아시아 행사를 통해 “창작자들의 교류의 장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창조경제의 살아있는 시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석기 한국문화원장은 “팝콘 아시아는 창작자들의 창작품, 아이디어, 서비스를 선보이는 최적의 플랫폼으로 한국의 창의적인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새로운 한류코드로 확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팝콘아시아(POPCON ASIA)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POPCON은 ‘Popular Culture Convention’의 줄임말로 코믹, 토이, 영화, 애니메이션 등 창의적 콘텐츠를 의미한다. 팝콘 아시아는 창조산업을 지원하고 국내에서 캐릭터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작년에는 한국, 싱가포르, 필리핀, 프랑스, 미국 등 11개국이 참여 116개의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24,000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올해는 10여개국에서 만화가, 토이 디자이너, 애니메이션 창작자 등 관련 전문가 및 산업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경상북도 -족자주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ASEAN의 중심 인도네시아와 교류협력 확대추진

- ① 경북도·족자카르타주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우호협력 및 문화교류 확대
- ②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트리삭티-새마을운동 연구소 설립·운영
- ③ 김관용 도지사가 제2의 새마을 지도자로 평가, 가자마다대학 명예박사 받아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ASEAN에서 가장 큰 신흥시장으로 평가받는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이자 리더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김관용 도지사의 주요 핵심행보는 ①족자카르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문화교류와 ‘실�크로드 경주 2015’ 홍보 ②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과 공동으로 해외 최초의 새마을운동 연구소인 트리삭티-새마을운동 연구소 설립·운영 ③김관용 도지사가 한국의 제2의 새마을운동 지도자로 평가받으며 인도네시아 대학 전체 순위 1위인 국립 가자마다대학으로부터 명예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5년 2월 24일 경상북도와 족자카르타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10년동안 공무원 초청연수, 새마을운동 보급,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단 파견, 농수산 기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여 왔다.

이번 10주년을 계기로 양 도·주는 상호간의 새로운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족자카르타 주지사와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며, 8월 31일 족자카르타 가자마다대학 공연장에서 족자카르타 주지사,

가자마다대학 총장,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특히, 가자마다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의 사물놀이 공연과 한국가수들의 노래와 춤을 따라한 K-POP 커버댄스, 인도네시아 청년체육부 소속 공연단의 태권도 시범공연, 자바문화를 상징하는 족자카르타주 예술단의 외양춤 공연을 선보이고, 경상북도는 도립예술단의 부채춤 공연으로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등 상호간의 문화 공감대를 넓혀나갔다.

경상북도의 대표축제인 ‘실�크로드 경주 2015’ 홍보관에서는 지금까지 경상북도가 추진한 육상(2만1천km), 해상(2만3천km), 철(1만4천km)의 실�크로드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방영하고, 실�크로드의 출발지가 경주였음을 알렸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9월 1일 가자마다대학 본부 대회의실에서 총장, 족자카르타 주지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자마다대학이 명예 행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된 배경으로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의 도시개발과 연계된 체계적 농촌사회개발이 실패하였고, 산

업화와 연계된 농업분야 개발이 저조한 상태에서 새로운 농촌개발모델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 도입을 추진중이며, 주민투표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한민국 유일의 6선 지도자로 국가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마을영농 공동체 육성, 농민사관학교를 통한 전문 CEO양성 등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모델을 제시하고 한국의 우수농산물인 인삼, 딸기 등을 인도네시아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경상북도와 가자마다대학은 9월 1일 가자마다대학 교철학대학에서 새마을운동과 트리삭티 정신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트리삭티-새마을운동 연구소’를 개소한다. 개소식에는 가자마다대학교 총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학대학장 목타사르 교수의 경과보고와 연구소 현판 제막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연구소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정신에 대해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새마을 세계화 재단과 함께 인도네시아 새마을 지도자를 선발하여 새마을 운동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되며, 교육받은 새마을 지도자가 고향 마을로 돌아가 새마을 운동을 전파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게 된다. 나아가, 트리삭티-새마을운동 연구소의 역할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국가연구소로 격상시켜 지

방에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을 인도네시아 전역에 확산시키고, 이웃 ASEAN 국가에 전파하는 사업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트리삭티 정신’ 이란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독립, 경제적 자립과 협동을 위해 강조한 정신으로, 경제적 자립과 협동은 새마을운동 정신과 유사하며, 최근 조코 위도도 정부 출범 후 국민정신 운동으로 다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 트리삭티 : 정치적 독립, 경제적 자립과 협동
- * 새마을운동 : 근면, 자조, 협동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이후 새로운 농촌 개발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중인 인도네시아에 해외 최초의 새마을 운동 연구소인 ‘트리삭티-새마을운동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현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도네시아의 새마을 지도자를 선발·교육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에 보급함으로써 농촌사회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ASEAN 국가에도 새마을 운동을 전파할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김관용 도지사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경제교류를 시작으로 문화와 교육등 다양한 교류로 확대되어 나가는 지방차원의 외교를 보여줌으로써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보다 확고히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3회 한-인니 미디어 설치미술전 개최 한-인니 양국작가 19인 참여 ‘New.Future’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석기)은 인도네시아 갤러리 협회와 협력하여 북부 자카르타 복합 문화예술 공간 Art: 1 갤러리에서 제3회 한-인니 미디어 설치미술 전시회 ‘새로운.미래 (New.Future)’ 전을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개최했다.

한-인니 미디어 설치전은 지난 2013년 한-인니 외교수립 4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전시회로 올해 3회째를 맞이 하였으며 올해는 인도네시아 갤러리협회와 공동 주관, 개최됐다.

한-인니 양국 작가 19인이 참여한 본 전시에서 Eldwin Pradipta 작가는 발리 관광문화를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통해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의 유현미 작가는 세계의 미술관을 회화화한 입체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등 양국의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8월 21일 오후 7시에 시작될 개막식에는 조태영 대한민국 대사, Edwin인니 갤러리협회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과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유현미 작가의 개막 축하공연이 있었다.

이번 전시회를 주관한 한국문화원 김석기 원장은 ‘디지털 작품이라 원거리 운송의 부담이 적고 우리 기업 첨단 디스플레이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원-원 효과를 생각하며 시작했는데 새롭게 발진하는 분야라 인니 언론과 미술인들의 관심이 높으며 본 전시회를 통해 최신 기술을 접목한 다채로운 양국의 미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본 전시는 인도네시아 미술전문잡지 Sarasvati Art 4페이지에 기획 기사가 이미 게재되는 등 관심이 높아 인도네시아 미술 애호가들에게 우리 미술의 새로운 면모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인니 설치미술전 개요

2013년 한-인니 외교수립 4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제 1회 전시는 “생활속의 협상 (Ordinary Negotiation)” 이라는 주제로 대중문화와 전통문화에 국한되어온 양국간 문화교류를 현대미술을 통해 그 의미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2014년 제 2회 “타이포토피아 (Typotopia) 전은 한글날을 기념, 한글 및 알파벳에 영감을 얻은 작가들이 문자와 기호를 창작물을 통해 재발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015년 제 3회 “새로운.미래 (New.Future)” 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큐레이터 2인의 각각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전시로 준비되었다.





25일, 한국대사관(대사 조태영)은 대사관 5층 대회의실에서 한인사회 대표들을 초청해 최근 남북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남북 고위당국자접촉 공동 보도문

『남북 고위당국자접촉이 2015년 8월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한인사회대표단은 시종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한 후, 남북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향후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UN과 함께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포럼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및 주인니상공회의소(KOCHAM)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요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동향과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부문을 중심으로 한 CSR 활동을 소개하고자 “UN과 함께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포럼”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인도네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께서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일시 : 9.7(월), 12:00~16:40
- o 장소 : The Ritz-Carlton Jakarta, Mutiara Ballroom(지하 1층)
- o 주최 : 대사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인니상공회의소
- o 목적 : 유엔 등 국제사회의 CSR 동향 소개
우리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동반성장 지원
- o 참석대상 :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임직원 80명
- o 프로그램(안)

시 간		프로그램	
12:00~13:00	60'	오 찬	세미나 참석자
13:00~13:05	5'	환영사	조태영 주 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
13:05~13:10	5'	축 사	Y.W. Junardy UNGC 인도네시아 협회장 겸 UNGC 이사 (TBC)
13:10~14:10	60'	글로벌 CSR 동향 및 반부패 동향	임홍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무총장 김민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매니저
14:10~14:30	20'	Coffee break	
14:30~15:00	30'	기업과 인권, 노동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5:00~15:30	30'	기업과 환경, 공급망 관리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
15:30~15:40	10'	Coffee break	
15:40~16:20	40'	현지진출 기업의 우수 사례 발표 1,2(TBC)	
16:20~16:40	20'	Q & A	
16: 40		폐회	

- o RSVP 통보 :
 - 대사관 이다영/이은경 주무관(2967-2555, koremb_in@mofa.go.kr)
 - KOCHAM 김혜아 간사(527-7539, kocham0909@gmail.com)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제 35회 열린강좌

‘바틱 이야기- 자바의 영혼에서 인도네시아의 정신으로’

박윤정(연구원팀장, 프로젝트 키워대표)

지난 8월 8일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지혁 박사를 모시고 바틱에 대한 강의를 2시간동안 진행했다. 연구원 입구에서는 Universitas Indraprasta PGRI, 디자인학과 베리(Veriana)양이 ‘바틱은 사랑이다.’ (사공경)라는 시구절처럼 영혼의 옷, 철학의 옷 바틱을 입고 절절히 선을 이어나가며 손님을 맞이하였다. 한없이 느린 시간을 통해 자바의 영혼, 바틱이 만들어짐을 감지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이지혁 박사는 바틱은 유노요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첫번째 상징물이라고 언급했었고, 2009년 유네스코 등재 이후로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주목받는 아이템이 바로 바틱이라고 설명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연이어 전통 바틱의 지역적 특징과 바틱의 현대화를 설명하면서 바틱은 현재진행형 문화다라고 이야기했다.

“바틱을 지역적으로 크게 구분하면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 바틱이 있고, 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해안(Persisir) 바틱이 있다. 중부 자바 바틱의 특징은 무늬가 기하학적이고 상징성을 추구하면서 궁중에서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전통을 고수하려는 반면 북부 해안 바틱은 수 세기 동안 해외의 다양한 상품들로 교역을 해왔기 때문에 혼합적이고 다문화적인 특징이 있다.” 고 말했다. 이어서 이지혁 박사는 바틱의 종류와 바틱 모티브, 바틱을 만드는 과정을 알려주면서 인내와 예술성이 필요한 작업인 만큼 예전 궁중에서는 젊은 여성들을 교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 특히 자바에서 왕족들은 바틱을 익히고 문양을 고안하는 것을 그들 신분에 맞는 덕목이라고 생각했다.’ 고 설명했다.

18세기에는 중부자바, 즉 족자나 솔로에서는 평민에게는 금지된 문양이 8개 있었다고 한다. 19세기부터는 누구나 입을 수 있지만 관습상 아직 족자나 솔로에서는 금지된 문양 바틱을 일반인들은 되도록 착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공경 원장은 바틱의 문양을 통해 인니인들의 생활과 철학을 설명해 주었다. “바틱은 자연에 순응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신에 헌신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들어 Tumpal (이등변삼각형 같은 기하학적인 무늬)은 마자빠히 왕조에서 시작되었으며 신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특히 인드라마유, 찌르본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바틱의 역사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삶의 역사이며 또한 바틱(문양)은 삶의 매개체 역할을 하며, 전통의 표현이며 화폭인 무명 천에 그리는 예술 작품입니다.” 라고 말했다.

강의에 참가한 평소 바틱에 관심이 많았던 교민들은 그동안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궁금했던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질문하며 강의를 한 층 업그레이드 시켰다. 인도네시아를 이해하려면 이미 5세기 이전부터 시작된 바틱을 연구하고 폭넓게 알아야 함을 배울 수 있는 또한번의 귀중한 시간이었다.



인도네시아 “사랑해요! LG상사 사랑의 다리”

- 자사 인도네시아 팜농장 인근 교량 재건설 및 개보수 진행... 주민 안전과 편의 도와
- 임직원 기부금액으로 교량 건설비 전액 마련... 사회공헌에 지속적 관심 쏟을 것

LG상사가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튼튼한 교량을 지어 기증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LG상사는 인도네시아 서부 칼리만탄 주(州) 스까다우 군(郡)에 위치한 자사 팜농장 인근의 낡은 목조 교량 2곳을 석조 교량으로 교체 건설하고, 석조 교량 1곳을 개보수하여 현지에 기증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교량들은 현지 지역 주민들과 인근 초·중고 8개교 학생들의 주요 교통로로 심각하게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폭우 등의 기상 상황과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았다.

유디(Yudi, 30세)씨는 “새로운 다리가 건설되어 지역사회에 기부된다는 소식이 너무 반가웠다” 며

“이제는 다리를 건널 때 마다 불안해 할 필요가 없어 기쁜 마음” 이라고 말했다.

LG상사가 이달 완공한 새 교량들의 공사비 전액은 임직원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됐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부터 매칭그랜트 방식의 사내 임직원 기부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매칭그랜트는 임직원이 내는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도 동시에 기부함으로써 나눔의 영역을 넓히는 방식이다.

LG상사 관계자는 “이번 교량 교체 및 개보수 활동이 현지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지역 경제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범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계획” 이라고 전했다.

한편 LG상사는 국내외에서 무료급식 봉사, 자연재해 복구 지원, 식수용 우물 및 저수지 개설, 장학 사업 후원, 스포츠 문화행사 후원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새로 건설된 ‘사랑의 다리’에서 인근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LG상사 팜법인 직원들과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제1회 인도네시아 국제 발레 갈라 쇼

22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자카르타 최고 공연장 중 하나인 Ciputra Artpreneur Theater에서 ‘제1회 인도네시아 국제 발레 갈라 쇼’가 열렸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조태영), 한국문화원(원장 김석기)은 인도네시아 발레파운데이션과 협력하여 발레리나 강수진 단장이 이끄는 국립발레단을 초청, 자카르타 국제 발레 갈라 쇼에서 다양하고 매력적인 레퍼토리와 고난도의 발레 기교를 선보여 인도네시아 관객을 사로잡았다.

이날 오후 1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갈라 쇼는 1부 인도네시아 발레단, 2부 호주와 체코 발레단에 이어 한국 국립발레단의 무대가 펼쳐졌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단장이 이끄는 국립발레단은 2부 메인 무대를 장식하며 돈키호테, 호동왕자 등 동양과 서양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레퍼토리에 관객들의 탄성과 박수가 이어졌다.



강수진 단장은 “이번 공연은 클래식 발레에 네오 클래식, 모던 발레를 섞어 관객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 발레를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국립발레단 단원들은 공연 다음날인 23일 재능기부 형식으로 인도네시아 발레 꿈나무를 지도하는 마스터클래스를 열었다.

KOICA, ‘인도네시아 고품폐기물 통합처리시스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사업’ 보고회 개최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이사장 김영목)은 8월 19일, 25일 양일에 걸쳐 각각 인도네시아 남부 땅그랑과 쥘레곤에서 ‘인도네시아 고품폐기물 통합처리시스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행사는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사무소장을 비롯하여 남부 땅그랑시 Mrs. Airin Rachmi Diany 시장 및 쥘레곤시 Mr. Ir. H. Suyitno시장이 참석하는 등 사업대상 지역 지방정부와 인니 중앙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이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KOICA는 이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남부땅그랑 및 쥘레곤 지역에 대한 고품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해 주고 아울러 실제 폐기장 공사로 연계될 수 있는 기본설계까지 제공하게 되며, 현재 각 해당 지방정부는 쓰레기 처리와 관련

려움 등의 문제로 신규 매립장 건설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경오염 절감과 주거환경의 질 향상에 직결된 폐기물 위생처리 문제를 당면과제로 삼고, 폐기물 통합처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기국가개발계획 및 특별계획지방자치법(RTRW) 등에 폐기물수거율 100% 목표가 반영되었고, 폐기물 단순투기를 전면금지하는 법령을 2008년에 제정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급격한 도시인구 집중과 산업시설 증가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한 남부 땅그랑시와 쥘레곤시는 폐기물 수거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고,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불법투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무기 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품의 낮은 회수율로 경제적인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관련 예산 및 관리감독인력의 부족,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겹치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KOICA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각 해당 지방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중장기적 폐기물 통합처리 인프라 확충을 위한 모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에너지화 시설을 통해 에너지판매로 수익을 창출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민관 상호의 강점을

활용한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지난 1993년 폐기물 최소화 개념이 도입되어 쓰레기 재활용처리 시설의 선진화, 폐기물 에너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바 있다. 이러한 경험의 전수를 통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여타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후속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된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수립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적극 노력 중이다.

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이 겪었던 쓰레기 처리 문제와 같이, 인도네시아도 최근 경제발전과 급격한 도시화 및 인구증대 등으로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단순 매립 이외에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대부분의 쓰레기 매립장이 사용기간 종료 시점에 다다랐을 뿐만 아니라, 도시인구 고밀도화 및 매립장 부지 확보 여

KOICA 인니 국가도로통합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 제2차 워크숍 개최

KOICA는 8월 6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MPWH)에서 KOICA가 지원하는 “인도네시아 국가도로통합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의 내용을 공유하는 제2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금번 행사에는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사무소장, 동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KOTI) 관계자, 인니 공공주택사업부 연구개발 부국장 Mr.Bernaldy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하여 동 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정보 및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였다.

KOICA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도로 교통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2년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반둥 시의 도로 교통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인도네시아 전역에 실제 보급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워크숍에서는 동 프로젝트 중간보고를 시작으로, 국가도로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 경과 및 마스터플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기관별 역할의 제시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시범시스템 및 기본 설계안이 공유되었으며 국가도로교통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방안과 관련된 발표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김병관 소장(중앙)이 참석자들에게 워크숍 축사를 전하고 있다

KOICA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도로 교통정보 통합 관리의 기반을 정립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교량의 유지보수 및 교통관리를 가능케 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측이 제공한 시범시스템의 효용성이 검증될 경우, 전국적인 도로교통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공 또는 민간 차원의 후속협력이 가능해지고, 우리나라의 기술력 및 노하우가 현지에 도입됨으로써, 관련 인프라 지원 사업에서 우리기관 및 기업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 인도네시아 국제도서전(IIBF2015)

‘2015 인도네시아 국제도서전(IIBF2015)’이 주빈국(The Guest of Honour)으로 참여한 가운데 2일 자카르타컨벤션센터(JCC)에서 개막해 6일까지 이어진다.

올해 도서전에는 인도네시아 출판사 외에도 독일, 프랑스, 인도 등 7개국 출판사 250여개가 참가했고, 한국업체로는 사회평론, 은행나무, 문학과지성사, 미래의 창, 이지스퍼블리싱, 한빛미디어, 다락원 등 한국 출판사들과 인도네시아에 처음 진출한 한국출판사인 순정아이북스, 저작권 관련업체 에스 24, 캐롯코리아에이전시, 에릭영 에이전시 등이 참여했다.

인도네시아 국제도서전은 올해 35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인쇄 출판 미디어 전시회로 지난해 전국에서 25만 명이 참가할 정도로 대규모 전시회로 자리잡았다.

2일 개막식에는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와 출판사 대표 250여명과 한국출판인회의(회장 윤철호 사회평론 대표) 회장단이 참석했다.

올해 한국관의 주제는 ‘한국·인도네시아 광복 70년’으로 5천년의 한국 문화유산과 인도네시아 누산따라 문화유산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조태영대사는 “인도네시아에서 K-POP, K-DRAMA, K-ANIMATION에 이어서 K-Book이 새로운 한류코드가 되어 상호간 문화를 이해하고 양국간 튼튼한 파트너십으로 확대될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축사를 했다.

인도네시아 출판협회(IKAPI)의 루시아 아담 테위 회장은 “한국은 지난해 도서전에서 최고 인기 부스(The Favourite Exhibitor)에 선정될 정도로 콘텐츠와 부스운영에 있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양국이 함께 독립 7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주빈국으로 참여한 한국을 크게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도서전 기간 중에 한국관은 광복 기념관, 출판사 전시관, 홍보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한국문화 공연, 한국단편소설 출판기념회, 한국 출판관계자 및 명사 토크쇼, 너버벌 퍼포먼스 ‘판타스틱’ 공연단, 어린이문화원 ‘드라마텐트’ 공연 등이 열렸다.

출판사 전시관은 한국의 종이·전자책(전시관 내 E-book 체험부스 마련)을 전시, 한국은 물론 인도네시아에서도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웹툰도 함께 선보이며 인도네시아 방문객들에게 한국 출판 콘텐츠의 다양한 면모를 선보였다.

또한 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Center)과 한국관광공사(Korea Tourism Organization)가 홍보부스를 운영해, 인도네시아인 관람객들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주요행사로 한국 문학창작대회 4개 부문(아동, 청소년, 대학생, 일반)의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리고,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이 지원하는 ‘한화라이프-한국 시 낭송대회’ 최종결선이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이번 인도네시아 국제도서전을 위해 한국에서 판타스틱 공연단, 중앙대학교 전통국악팀 ‘예랑’, 어린이문화원 ‘드라마텐트’를 공연하였다.

김석기 인도네시아 문화원장은 “이번 전시관은 한국의 전통적 인쇄 매체와 디지털 미디어 서적을 함께 전시하였고, 한국은 물론 인도네시아에서도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웹툰을 함께 선보여 한국 출판미디어의 다양한 면모와 발전상을 인도네시아 관람객에게 소개할 수 있게 준비하였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dailyindonesia]



(학생기자 김교빈)



전학생들의 지스(JIS) 적응기

두달 여의 방학을 끝내고 새학년으로 바뀌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전학생들의 좌충우돌 적응기가 시작되었다. 4명의 전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학교생활을 엿보았다.

이전 학교랑 지스랑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김혜지 (11): 처음 지스 왔을 때 많이 놀랐어요. 일단 학교 크기에 놀라고, 학생수에도 놀랐죠. 전 학교는 작았거든요...한 학년에 35명 정도? 근데 여기는 한 학년에 평균 200-250명이니깐 차이가 많이 나죠.

김동영 (10): 제가 생각하는 다른 점은 자신의 스케줄을 정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이전 학교(AIS)에서는 주어진 스케줄을 따라야 했었는데 지스에서는 각자 원하는 수업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한경진 (9): 이전 학교(SPH)랑 다른점은 지스에서는 “반”이란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대학교처럼 강의실을 찾아가는거라 조금 헛갈릴때도 있죠.

지스의 어떤 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김혜지 (11): 클럽활동이 많아서 좋아요. 봉사클럽도 있고, 운동클럽, 문화클럽, 심지어 여행클럽까지, 거의 50개의 클럽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요.

김동영 (10): 학생수가 많아서 친구 사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적응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학교 시설도 빠질 수가 없죠...운동장, 체육관, 구내식당,

다 수리한 지 얼마 안되서 최신 시설들이에요.

최원영 (9): 사복이요! 이전학교(BIS)에서는 교복을 입어야 했는데, 여기는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아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김혜지 (11): 학교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전학생들 모아서 오리엔테이션 했어요. 그래서 친구도 빨리 사귀고 적응하기 쉬웠는데 학생수가 많고 학년구분이 없어서 그런지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사람들 말고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김동영 (10): 크게 어려운거는 없는거 같아요... 단점은 있어요. 학교가 너무 커서 반 옮겨 다닐때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은 대부분 야외에 있는데... 너무 더워요.

한경진 (9):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 친구들이랑은 빨리 친해졌는데 외국인 친구들과는 거리가 조금 있어서 친해지는 데 조금 어려운 건 있어요.

앞으로 지스로 올 전학생들한테 조언 없나요?

김혜인 (11): 제가 조언을 할 만큼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오리엔테이션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거기서 다른 학생들과 안면도 트고, 친구도 사귀고...학교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되요.

김동영 (10): 대인관계가 중요해요. 적응하는 데 도움 받을 수 있고, 학업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냥 모든걸 즐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JIS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282회 문화탐방

꼬따뚜아(Kota Tua) 이야기 (1회 꼬따정기탐방)

- 역사, 외양, 미술 박물관 / 파타힐라 광장

일시: 9월 5일(토)

진행: 최우호 팀장

회비: 25만루피아(비회원 30만루피아) 정원: 10명 이내

신청: 채인숙 부원장 081584797879 최우호 팀장 081290478845

(SMS로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두십시오)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바틱 실습 (Batik Tulis Mencanting)

강사: guru batik Veriana (Universitas Indraprasta)

일시: 9월부터 매주 목요일 10-12시

회비: 5만루피아(비회원 10만루피아)

장소: 한*인니문화연구원신청: 최미리 수석팀장 0815-181-3162(SMS 신청)

문의: 021) 2966-0825

한*인니문화연구원 Jl. Gatot Subroto Kav.58 한인회문화회관 1층
(disebelah Korean Embassy, sebelum rumah sakit Medistra)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www.ikcs.kr)

284회-291회 문화탐방 (제 2차 해외탐방)

역사고도 시안, 천하절경 장가계 7박8일

일시: 10월13일(화)-20일(화) (예약마감 9월 20일)

탐방지: 진시황릉, 병마용, 화정지, 고도서안(장안),
전문동, 무릉원, 원가계 외

진행: 자유여행가 정대식

(0816784216 kTID ibjang313/01099570577 kTID jds3133)

회비: USD 2450 (All in - no shopping, no option)

항공사: 대한항공+로컬 2회

호텔: 5성급(시안 셰라톤, 장가계 대성산수 혹은 동급)

참가신청: 0816-190-9976 (sms or kTID love520813)

*12인 이상시 진행/인전 stop over +USD 60(희망자)





Bali festival
제 6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문학상 시상식
초대합니다



한.인니 문화연구원 www.ikcs.kr
STUDI KEBUDAYAAN KOREA DAN INDONESIA / INDONESIA & KOREAN CULTURE STUDY

-참가신청-
SMS 혹은 카톡
최미리수석팀장 0815 181 3162 (KTID milkway76)
최우호팀장 0812 9047 8844 (KTID g5166)
왕연서문화연구원 밴드

한국음악을 전공하고 인도네시아 전통음악을 연구 중인 정지태씨와 가물란의 대가 I Wayan Sudirana가 만든 사물놀이 징공팀은 한국에서 열린 세계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당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 패 단장이자 세계 사물놀이 한마당의 집행위원장이자 김덕수 교수가 "환상적인 소리"라고 극찬한 발리 징공 예술팀을 초청하여 한국의 사물놀이와 발리의 전통 음악이 결합된 전혀 새로운 음악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자보다 여럿이서 더 아름다운 Angklung 연주(Audy & Jin Group)

일시 : 15:00~17:30 Minggu 20 Sep 2015
장소 : Lotte Shopping Avenue Lt. 4, Ice Palace
Jl. Profesor Dr Satrio Ciputra World 1 Karet Kuningan

<후원> 재외동포재단 / LOTTE SHOPPING AVENUE
PT.TAEWON INDONESIA / PT.PRATAMA ABADI / PT.CIPTA ORION METAL

제6회 인터넷 문학상 수상자

상명	학생부		구분/수상자	일반부	
	이름	제목		이름	제목
대상 주인니 한국대사상	강동현 JKS 10학년	조노 아저씨	대상 주ASEAN 대사상	최우호 UI BIPA	죽음은 삶과 하나 (해골마을 또라자)
최우수상 재인니 한인회장상	신승재 SIS 12학년 (수라바야)	브로모 연가(시)	최우수상 재인니상공 회의소회장상	강석영 RS. MRCCC 물리치료사	두 번째 기회
우수상 한*인니 문화연구원장상	박다인 SPH 11학년	말랑 할머니의 선물	우수상 자카르타한국 국제학교장상	이은미 주부	안야르의 깊고 푸른 날
우수상 한국문인협회 인니지부장상	이재원 GJS 12학년	천개의 섬	우수상 인도네시아 예술가상	노명화 JKS 국어과교사	돈은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장려상 한*인니문화 연구원상 (가나다순)	김혜리 GJS 11학년	하루에 몇 번 하늘을 보시나요	장려상 한*인니문화 연구원상 (가나다순)	강주미 주부	구름(시)
	오하영 AIS 9학년	내가 만난 족자		은보라 주부	인내
	한하림 JKS 11학년	국립박물관		신학섭 롯데건설 ASC 현장	첫 번째 입맞춤



집중! 여기

CGV blitz



CJ CGV 임종길상무와 직원들

한류를 선도한다! 첨단 극장 'CGVblitz' 를 찾아서..

CJ CGV가 인도네시아에서 또하나의 'CGV' 깃발을 내걸고 동남아 1위 극장사업자를 향한 질주를 시작했다.

지난 6일 인도네시아의 기존 'Blitz Megaplex' 의 모든 브랜드를 'CGVblitz' 로 전격 전환했다.

'CGVblitz' 는그간 침체기였던 인도네시아 극장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최첨단 문화공간 명소를 선보이며 현지인들은 물론 주요언론의 호평을 받으며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인터뷰가 진행된 Grand Indonesia 8층에 위치한 'CGVblitz' 의 첨단 특화 고급 영화관들과 우아한 로비 공간들을 한가위를 맞아 상영 되는 1000만 관객 동원 인기 영화 '베테랑' 의 할인 증정권을 가지고 가족 동반 관람 하실것을 강추하며 CJ CGV의 그간 이야기를 들어본다.

Q1. 한류처럼 CJ CGV의 인니 진출 소개

한국영화 상영 1위업체인 CJ CGV는 현지 'Blitz'와 손잡고 지난 2013년 인니시장에 진출하였다. 어느 나라이든 문화산업의 해외투자자의 진입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하여, 많은 난관이 있었다. CJ CGV는 지난 2011년 'Blitz'측의 위탁경영을 맡아 관람객 및 매출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신규 멤버십 제도, 모바일과 웹 마케팅, 극장운영 전문요원양성, 혁신적인 상영관 소개 그리고 현지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별도소개) 등은 현지 문화관계자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다. 이에 따라 현지 파트너도 'CGV' 브랜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였다.

Q2. 인니 극장업 현황 및 CGV의 향후 전략

인구대국 인니는 25세 이하의 인구층이 50%로 모든 면에서 무궁한 성장가능성과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이다. 인니극장 전체스크린수는 878개로 평균 25만명당 1개이다. 한국은 2만명당 1개로 총 2500개 스크린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CGVblitz'는 금년말까지 19개극장에 139개 스크린을 운영하게 되며, 오는 2020년에는 극장수 80개에 600개 스크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은 최초 극장업 형태로 진출하여 영화를 구입, 배급하는 과정을 거쳐 영화제작에 참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각종 미디어, 방송 그리고 뮤직과 광고 그리고 게임 산업등 콘텐츠부문에까지 진출하는 형태를 갖춘다. 우리는 최초 단계인 극장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된다.

Q3. 영화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데..

실제 영화산업의 가장 큰 경쟁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꼽을수 있다.

극장들은 영화를 극장에서 보아야하는 이유를 내놓아야한다.

가장 큰 미국의 경우 최대 극장사업자인 리갈시네마, AMC의 경우 올 상반기 역대 최고 매점매출을 기록했다. 우리가 진출한 중국,베트남,미얀마를 비롯한 국가들은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에 힘입어 향후 문화생활의 욕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된다. CGV는 세계 최초 오감체험 4차원 4DX, 침대형 영화관 Velvet 관, 커플좌석 스윗박스관, 스피커 64개의 커브 대형화면 스피어X 관 등 선진 관람 문화환경을 현지에 선보이며 팬들의 라이프스타일 진화와 함께 한류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Q4. 동포사회에의 부탁말씀

CJ CGV의 성공적인 진출은 대사관, 한국문화원, KOICA 그리고 동포사회의 많은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비해 문화 공간이 부족한 우리 동포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항상 생각하며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명량, 암살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를 수입 상영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23일부터 'CGVblitz' 영화관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인기영화 '베테랑'이 상영된다. 가족 동반으로 인근에 위치한 CGV영화관을 방문하시어 빠르게 변화하는 영화산업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맞이하시는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000만 관객 돌파 '베테랑' / CGVblitz 증정권
(2장을 1장, 4장을 2장가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BUY 1 GET 1 FREE

Terms & Conditions

1. 9월 23일부터 상영되는 'VETERAN'에 한함
(CGVblitz전 영화관 2D에 한함)
2. CGV 극장 카운터에 본 할인권을 제시하세요.
3. 상영 일정과 상영관 확인은(www.cgvblitz.com)



CGV blitz

CGV아트 하우스

- CGV 아트 하우스는 좋은 영화, 색다른 즐거움이 가득한 독립영화, 예술영화등을 상영하는 특별관으로 CGV한국외에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영화를 활성화 하고 다양성 있는 해외 유수의 작품을 상영하는 곳으로 2015년초 퍼시픽플레이스 CGVblitz에 오픈하여 운영중에 있다. 매일 다양한 관객참여 형태의 씨네마톡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토토의 작업실

- CGV글로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대상 영화창작 프로그램 입니다.

2014년8월 CGV와KOICA가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10월까지 총8회에 걸쳐 토토의 작업실 행사를 진행한다. 현재까지 총4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지 청소년들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 창작을 경험하고 나아가 향후 영화업계의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작된 작품들은 시사회를 가지면서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도 한다.

이후 프로그램에 지원된 장비들은 해당학교에 기증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어지도록 돕고있다.

[특화관]

CGVblitz는 4DX, Velvet, Goldclass, SphereX, Sweetbox등 특화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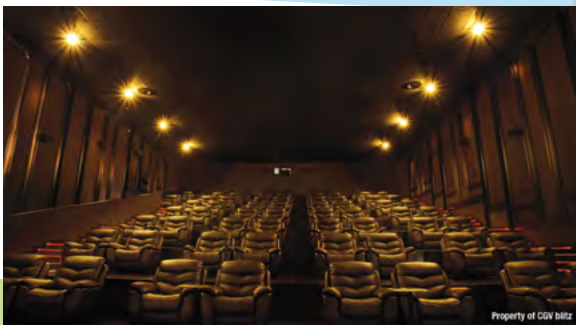


Velvet은 CGVblitz만이 제공하고 있는 침대형 영화관으로 담요와 쿠션등 집처럼 편안한 관람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인도네시아 주요 관광 명소로 꼽히고 전세계의 유일한 특화관으로 각광받고 있다.

4DX는 CGV의 신기술인 오감체험상영관으로 4차원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영관이며, CGV만의 혁신적인 상영관으로 바람, 물, 연기, 향기등 약 20가지의 특수 효과를 지원합니다.



SphereX는 공간적인 몰입감을 선사하는 최고로 진화된 상영관으로 스크린, 사운드, 좌석이 만들어 내는 최대 시너지로 '나를 감싸는 듯한' 공간적인 몰입감을 선사 합니다.



Gold Class는 소파 형태의 좌석에서 편안하게 감상하면서 골드클래스 라운지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는 특별관 입니다.



Sweetbox는 넓은 좌석과 편안한 시트로 오붓하게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커플좌석 입니다.

한인뉴스 8월호 집중! 이 사람 코너의 한화생명 현정환법인장을 **현정섭** 법인장으로 정정합니다.



나의 꿈은 000입니다

“김윤석 강사의 토크쇼” 를 듣고

<강사 김윤석 경력>

글: 이연주

Leaders컨설팅 그룹대표

<강의분야>

교육게임 마스터 과정 / 과정개발 전문가 과정

퍼실리테이팅 스킬 / 전문강사양성과정 / 전략적 리더십 /

커뮤니케이션 PCM (Process Comm.. Model

Digital Presentation Skill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도 일년이 지났다. 쉬워 보였는데 쉽지 않았고, 느리게만 느꼈는데 순식간이었다. 나의 시간이 일년 동안 고여있지는 않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김윤석 강사의 토크쇼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끌어 당김의 법칙”

룬다 번의 책 <시크릿>은 독자에 따라 호불호가 있는 책이지만, 몇 년 전 갈등하는 나에겐 확신을 주었던 책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토크쇼에 신청을 했다. 다행히 길이 밀리지 않아 제 시간에 도착한 헤리티지 도서관은 여전히 좋은 전망과 근사한 서가로 나를 반겨주었다. 흠... 근사한 서가에 꽂혀있는 책(원서)들이 그림의 떡인 것이 아쉽기는 하다.

토크쇼를 진행해 주신 김윤석 강사님은 인도네시아 주재 최대 규모의 한국기업인 ‘코린도그룹’의 관리자들에게 리더십과 문제해결을 주제로 3일간 강의를 하러 한국에서 오셨다.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하루 미루고 교민들을 위해 흔쾌히 토크쇼를 진행해 주셨다. 강의는 ‘끌어당김의 법칙’, ‘여성의 리더십’, ‘자녀교육의 아이러니’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었다.

강사님은 ‘한 남자를 교육하는 것은 한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고, 한 여자를 교육하는 것은 한 가정을 교육하는 것이다’ 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까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교육에 임하신다고 하셨다. 알고는 있었지만 강사님의 말씀은 엄마의 역할이 한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의 과도한 스마트 폰 사용을 걱정하면서 엄마도 스마트 폰을 놓지 못한다는 지적은 나를 부끄럽게 했다.

“You can do it, I will show you.”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선 아이의 미래를 믿어주고 부모 자신도 꿈을 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성취를 위해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열심히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흥미로운 줄다리기 동영상 을 통해 쉽게 깨달을 수 있었다. 아마추어들도 프로의 경기방법을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독서와 학습을 통한 자기경영이다. 자기경영을 위해서는 자기경영이 사회활동을 주로 하는 남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여성들도 자신을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정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나도 내가 원하는 것 보다는 가족이 원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소원을 세 가지 이야기해보라 했을 때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어떻게 행복한지 잘 모른다. 그럼 난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꿈을 만들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자기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사의 이야기다. 특히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신의 에너지를 꿈의 성취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최고의 수단인 것이다.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흥미로운 동영상 이 곁들여진 토크쇼는 2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아쉽고 유쾌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날 함께 했던 사람들만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특히 남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맞장구를 치며 다음을 기약한 후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에 맴돌던 문장이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일년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다. 주재 임기 동안 잘 버티고 가면 다행이라고 자위했다. 하지만 내가 있는 이 장소 이 시간이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강사의 말은 나의 안주(安住)를 꾸짖는 것 같았다. 지니가 다시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나는 말할 것이다.

“지니야, 나의 꿈은 000이야!”



재미있고 유익한 예쁜 이야기책을 소개합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옛이야기 1 / 엮은이: 임경애교수(UI대, 한국학과)



‘한국 인도네시아 옛이야기 1’은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옛날 이야기를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 두가지 언어로 쓴 책으로 인도네시아 대학교 교수와 학생들, 자카르타 예술대학교 교수와 학생의 그림으로 만든 책이다. 첫번째 이야기는 한국의 ‘효녀 심청’ 이고 두번째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의 신기한 이야기 ‘케옹 으마스’ 이다. 인도네시아 한국 문화원의 후원으로 발간된 이 책은 어린아이들에겐 세계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와 학생들과 어른들에겐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의 문화도 접할 수 있는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Indonesian Heritage Society
헤리티지 코리아안 섹션



박조유 우드워킹 조각 초청전시회

일시: 2015년 9월 5일(토) ~ 16일(일)
장소: 롯데 쇼핑 에비뉴 메인 아트리움
전시회 개막식 : 2015년 9월 5일(토) 5시
축하 연주회 색소폰 동호회 : 2015년 9월 6일(일) 5시

나무를 가장 나무답게 하는 조각가 박조유 초청 전시회를 자카르타에서 개최합니다.

인도네시아 고목에 혼을 불어넣어 예술 작품을 만들어 롯데백화점에서 개최하는 박조유 조각가 우드워킹 초청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보기 힘든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안 섹션
후원: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한인 문예총
한인니 문화연구원
롯데 쇼핑 에비뉴



순간 & 영원



[사진] Tamie bichler / Australia

보디페인팅으로 몸을 지우고 바위가 된 저 사람
먼 길을 쉬지 않고 뛰거나 걸어왔을 저 사람
이제는 산 아래 어디쯤에서 쉬고 싶은 저 사람

누구일까 저 사람.....



2015년 8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인도네시아 정부, 한국 신발 기업 돕기에 나서

4일 한국계 신발기업 파크랜드(회장 신만기) 관계자가 스마랑 즈빠라 군수와 논의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코리아.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계 신발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프랭키 시바라니 투자조정청(BKPM) 청장은 “운동화와 의류를 제조하는 한국계 A기업은 1억 2,000만 달러를 투입해 중부 자바 즈빠라 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공장이 설립되면 20,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 이라고 5일 밝혔다.

이어서 프랭키 청장은 A기업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최소 6곳의 거래처들도 즈빠라 인근 지역으로 진출해 향후 50,000여 명의 고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신발 업계의 연평균 투자 증가율은 4.74%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발 업계에서 일어난 투자 총액은 10조 7,000억 루피아로 예년보다 1.25% 증가했다. 산업부는 신발 업계가 흡수하고 있는 노동자 수를 64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BKPM 투자 마케팅부서에서 싱가포르와 한국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짜효 뿌르노모씨는 중부 자바와 즈빠라군의 허가가 나면, A기업 공장 착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자는 공장 건설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 4일 A기업 관계자와 함께 간자르 끄라노워 중부 자바 주지사와 즈빠라군 담당자를 만났으며 사전에 중부 자바 주지사에게 전력 공급과 보세구역 지원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A 기업은 지역 인력교육센터와 협력해 지역 노동자들을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기업 담당자는 “당국은 공장 설립이 실현되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 전했다.

BKPM에 따르면 한국은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4번째로 컸던 국가다. 이 기간 투자액은 7억 8,780만 달러로 추산되며, 현재 1,02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프랭키 청장은 5일 A 기업 대표단을 만나 인도네시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 집약적 분야의 투자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달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은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실업률이 5.8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7%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소폭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전체 노동인구 1억 2,830만 명 중 745만 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업종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다면 인도네시아 실업률은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은행 월간 달러 구매 2만5천 달러로 제한

중앙은행(Bank Indonesia, 이하 BI)이 달러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19일 아구스 BI 총재는 루피아화를 안정시키고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달내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액수를 2만5천 달러로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한 달내 10만 달러 구매가 가능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월간 2만 5천 달러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납세자번호(NPWP) 등을 기재한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르자 BI 부총재는 “본 정책은 자금의 과도한 유동성을 막기 위한 것이며 단기간에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루피아화는 미국의 금리 인상 관측과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등을 배경으로 내림세를 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루피아화가 10.5% 평가절하 되었다고 밝혔다. 19일 기준 미 달러 대비 루피아화 환율은 13,831루피아였다.

BI, 환율 개입해 루피아화 하락 8% 이내서 막겠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서 4일 열린 인도네시아 경제분야 회의에 경제분야 수장들이 모두 모였다. 이날 회의에는 소피안 잘릴 경제조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수디르만 사잇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왼쪽), 인드로요노 수실로 해양조정부 장관(왼쪽 두번째), 아구스 마르토펜도조 BI 총재(가운데), 그리고 밤방 브로조노고로 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참석했다. 사진=안따라(Antara)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루피아화 가치 하락률을 8%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루피아화 약세를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환율개입을 이어갈 것 의향이 있다고 현지언론은 5일 전했다.

아구스 BI 총재는 “국내 경기침체와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등을 배경으로 루피아화 절하가 계속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연초 이래 미 달러화에 대한 루피아화 가치하락 8.5%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BI)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6월말 외환보유액은 1,080억3,000만 달러(약 128조 원)이다. 올해 중순께 환율개입을 실행하며 5월말 기준 1,108억 달러에서 2.5% 감소했다.

최근 루피아화 환율은 1달러=1만3,400~1만3,500 루피아선을 오가고 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 〈저울을 든 여인〉



작가 : 요하네스 베르메르 (Johannes Vermeer, 1632~1675)

작품 : 저울을 든 여인 (Women Holding a Balance)

42.5 x 38cm, oil on canvas



높은 창에서 들어오는 빛.

성(聖)과 속(俗), 빛과 그림자.

그리고 정확히 중앙에 저울을 든 여인의 손이 있다. 한낮의 햇빛은 여인의 섬세한 손끝에서 정점을 이룬다. 이제 막 평형을 이룬 저울. 탁자 위엔 진주와 금화가 흐트러져 있다. 구겨진 채 벗어놓은 푸른 옷 위엔 거울이 보인다. 반면 대각선 위로는 성모마리아를 연상시키는 잉태한 여인이 푸른 옷을 입고 있다. 초연해 보이는 여인의 배경엔 '최후의 심판' 그림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여인의 머리 위로 두 손을 들어올린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 저울을 든 여인 〉**이다. 윤리적, 종교적 알레고리가 충만한 그림은 묻는다.

“너는 지금 잘 살고 있느냐?”

17세기는 네덜란드의 황금기였고 바로크 미술이 절정을 이룬 시기였다. 빛의 극적인 효과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을 표현하고자 했던 바로크 시대. 베르메르는 바로크의 거장 렘브란트보다 26년 뒤에 네덜란드의 델프트에서 태어났다. '델프트의 스펅크스'라고 불릴 만큼 그의 삶은 베일에 싸여 있고 자화상도 없다. 37점의 작품만이 남아 있고, 작품 대비 참으로 많은 걸작을 남겼다. 인기에 걸맞게 세기적인 위작 스캔들도 있었다.

그래도 남아있는 자료들로 추측을 한다면.....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여관을 하면서 늘 집안에서 그림을 그렸다. 두 개 정도의 방에 셋트장을 만들고 감독처럼 인물과 소품들을 배치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었을 것이다. 화폭에서의 공간표현과 구성의 거장이라 할 만큼 정밀한 묘사와 색과 빛을 사용했다. 쪼들리는 살림 탓에 직업모델을 쓰

긴 힘들었을 것이고 11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집안의 일하는 사람들을 그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정감있고 친밀하게 느껴진다.

인물들은 늘 움직이며 뭔가를 하고 있다. 편지를 쓰거나 읽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웃고, 우유를 따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너무나 사소한 움직임들이어서 모델들이 그러한 포즈를 취했을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스쳐지나가는 시간이 어느 순간 정지한다. 베르메르가 즐기는 조명, 왼쪽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부드럽게 방의 소품들과 인물에 닿으면서 공간의 깊이가 살아난다. 실내정경은 기념비적인 순간에 멈춘다. 그가 만들어낸 스토리는 흐르고 있는데 여전히 '고요'하다.

정(靜)중(中)동(動).

그림에 머물다보면 어느덧 타임머신을 타고 17C 네덜란드의 어느 집에 가게 된다. 열려있는 문틈으로 방안을 보고 있거나, 방 한 구석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느낌이다. 낮설지 않다. 그 정경은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약간 노곤해질 만큼 평화롭고 따스하다. 그 속에 머물고 싶은 달콤함도 있다.

이 일상의 달콤함.

침(恬)밀(蜜)밀(蜜).

이처럼 베르메르의 작품은 고요하고 감미롭게 우리를 끌어들인다. 따스한 햇살도 함께 누리고 있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남겨진 자료는 별로 없지만, 베르메르의 삶의 행보는 그의 작품과 같지 않았을까? 아주 조용하게 몰입하는 삶. 사소한 것에도 너무나 정밀하고 따스한 시선. 그러나 결국엔 정점에 이룬 기념비적인 작품들.

아마도 높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이었으리라.

글:김선옥(인니 미협회원/땅그랑문화원회화반 강사)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멕시코 여류화가 “프리다 칼로”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1년 내내 열대성기후인 인도네시아에 오래 살아왔지만 한국에서 보내는 여름의 찜통더위도 만만치가 않다. 사계절의 특성상 한순간 머물다가는 계절이라 그런지 한여름의 열기는 더 뜨겁게 느껴지는 것만 같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8월의 달력을 바라보며 9월초에 인니로 돌아갈 티켓을 예약해 놓다가 아차!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 온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시되는 멕시코 비운의 천재여류화가 프리다 칼로展(Frida Kahlo, 1907-1954)을 꼭 보고 가야한다는 조바심에서다. 초현실적 요소를 담아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자화상을 통해 그녀만의 강한 색채의 화법으로 올해 한국의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은 당시 미술계의 거장인 파블로 피카소도 극찬했다고 한다. 각 나라의 지폐는 자국을 대표하는 위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5만 원 권에는 신사임당이 새겨져 있듯이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의 500페소 지폐에 등장할 만큼 멕시코를 대표하는 유명한 여류화가이기도 하다.

드디어 바쁜 일정을 마무리하고 프리다 칼로 전이 열리고 있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소마미술관으로 향했다. 내가 멕시코의 여류화가 프리다 칼로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아마도 25년 전의 일로 기억된다. 갓 두 돌이 지난 큰아이를 데리고 주재원이던 남편을 따라 싱가포르에서 해외 생활을 처음 시작할 무렵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약간의 우울증을 경험하던 시절이다. 낯선 환경에서 고국을 떠나온 외로움에 지쳐있던 내게 최초로 해외에서 만난 프리다 칼로의 전시회는 힘들고 지친 자아에 벽찬 감동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강한 색채가 인상적인 자기 고백적 현실성 있는 작품은 내 심장을 떨리게 했고 웬지 위로를 주는 것만 같았다. 절망과 고통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자화상과 그녀가 살았던 파란만장한 생애는 그 시절의 나에게 어떤 격려보다 큰 위안으로 다가왔다.

프리다 칼로는 6세 때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생겼고 18세 때에는 전차사고로 또다시 다리와 자궁을 크게 다쳐 평생 30여 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내성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이 되었던 그녀는 22세 때 스물한 살이나 많았던 남편 디에고 리베라를 만난다. 디에고는 여성편력이 심하고 잦은 외도로 불행한 결혼생활을 안겨주었다. 그녀 앞에 놓인 어둠이 짙은 현실은 오히려 내면깊이 숨 쉬고 있던 예술적 자질과 열망에 강렬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녀의 화폭에서 만난 내던져지듯 버려진 어두운 자아 적 슬픔은 묘한 카타르시스로 나의 예술적 관심사를 자극했다. 아마도 같은 여자로서 절망과 고통으로 얼룩진 그녀의 인생사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는지도 모른다.

강하고 입체적이고 색감이 짙은 작품 속 표정과 강렬한 눈빛은 그때의 나를 응시하며 바라보는 듯했다. 절망 속에서도 예술과 사랑에 혼신을 다했던 그녀의 삶은 한 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기에 열심히 살아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만 같았다.

젊었던 그 시절, 내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녀의 작품들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30대 초반에 본 그녀의 그림은 슬픈 자화상처럼 격정적이고 애처로웠지만 강산도 두 번 변하고 남는다는 2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바라보니 그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때는 미처 볼 수 없었던 그녀만의 당당함과 그녀가 겪었던 현실의 고통이 너무도 진실되게 표현되어서 작품전체가 슬프고도 위태롭게 느껴졌다. 너무 적나라하고 짙은 칼라도 인상적이었지만 어찌면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 그토록 강한 색감을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신체적인 여성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기에 어찌 보면 끔찍한 그림인데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프리다의 내면세계가 전달되어 관객들로 하여금 역설적으로 슬프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자신은 물론 남편 디에고를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꾸미길 소망했던 그녀만의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스며져 있음을 느낀다. 그 시절엔 보이지 않던 강인한 에너지가 전류처럼 전해져왔다.

무더운 여름임에도 프리다 칼로 전시 끊임없이 관객을 불러 모았던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만 같다.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던 그녀는 외도만을 일삼는 남편 디에고를 향하여 그녀만의 강렬하고 독특한 화법으로 생명력을 지닌 복수를 했는지도 모른다. 소마미술관 제1전시실부터 제3전시실까지는<절망에서 피어난 천재화가>라는 주제로 프리다의 인생을 분류한 작품으로 전시해 놓았다. 제3전시실에 들어서자 자신과 남편 디에고를 빗대어 해와 달로 은유해놓고 서로 끌리지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운명을 표현했던 프리다의 유명





작품 <우주,대지(멕시코),디에고,나,세뇨르 솔로틀의 사랑과 포옹>이라는 작품이 한눈에 들어온다. 오랫동안 관람객들의 시야를 사로잡았다. 나 또한 이 작품을 감상하며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만 같다. 한 여자로서 머물지 않고 자유로운 예술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탐구했던 그녀였기에...

제 4전시실에서는 프리다 칼로가 생전에 입었던 화려한 멕시코 전통의상과 그녀의 헤어스타일과 장신구를 전시하고 있었다.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남편 디에고의 간청으로 멕시코 의상만 즐겨 입었던 그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었다.

세계 패션가에 이슈가 되었던 프리다 칼로가 착용했던 목걸이와 그 시대의 의상 등, 유명 사진작가들이 카메라 렌즈에 담으려고 열심히 셔터를 누르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진한 눈썹의 자화상들은 그림 곳곳에 묻어있는 장애의 아픔과 계속되는 남편의 외도로 고통 받는 그녀의 삶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위로 받았던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다.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보며 이렇듯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은 나도 어느덧 나이를 먹고 삶을 대하는 연륜이 깊어진 까닭이리라. 어떠한 예술이든 예술가가 맞닥뜨리는 삶은 곧 그 예술가의 작품에 투영된다. 자화상에 집착하던 프리다가 그녀의 말년에 보이는 정물화에 눈을 돌린 것은 아마도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여유를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이 든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땐 길을 헤매듯 방황하기도 하지만 다시 삶의 여유를 찾게 되면 그때를 돌아보며 현실을 직시하는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오래 기억되는 예술이란 결국 진실이 담긴 예술일 것이다. 그녀의 전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 예술혼을 불태운 열정이 고스란히 그녀의 작품을 통해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과 3개월이라는 시간에 3천이 넘는 한국의 관람객이 뜨거운 여름을 불태우며 프리다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어느새 무더운 여름도 끝자락에 와있다.

바야흐로 힐링의 계절인 9월이 눈앞에 다가온다. 너나 할 것 없이 지나간 시대의 가요를 흥얼거리고 추억 속 동심의 시절을 회상하며 치유를 부르짖는다. 우리가 이토록 힐링에 목말라 하는 것도 어쩌면 따라잡기 버거울 정도로 빠르게 순환하는 세상살이도 한 몫 한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몸과 마음의 피로감은 어쩔 수 없나보다. 그럴 때는 자연을 찾아 떠나거나 잠시 고요한 전시회를 찾는 것도 하나의 해답이 될 것이다.

프리다 칼로의 작품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꾸밈없이 배설한 흔적을 느낄 수 있어 시원하고 통쾌한 느낌을 준다. 어쩌면 예술가의 사명이란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자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내면의 거울을 선사하는 것이리라.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I hope the exit is joyful. and I hope never to return...<프리다 칼로>)

이 문구는 프리다 칼로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한다. 열정으로 꽃피웠던 천재여류화가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예술계에 이름을 남기고 1954년, 47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먼 세월 돌아와 다시 만나게 된 프리다 칼로의 작품은 내 마음 안에 깊은 울림이 되어 나를 지탱하는 마법사가 되어준 느낌이다.

전시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소마미술관 2층에서 바라본 올림픽 공원의 푸르른 잔디가 더욱 진하고 초록 초록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사소한 거짓말’ 혹은 ‘하얀 거짓말’ 모럴 다이어트 (2)

개인의 도덕성 결여가 아닌 사회적 전염현상에 의한 부정행위도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소속된 집단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선을 넘는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본다면, 나 역시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추종하게 된다. 일찍이 솔로몬 애시(Solomon Asch)가 보여준 권위자의 복종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친구를 왕따 시키는 경우, 처음부터 불량한 마음을 가진 학생이 과연 멎이나 될까?

군중심리와 동조현상이 강할수록 사회적 부정행위는 확산된다. 이런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1982년 제임스 윌슨(James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Kelling)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을 제시했다. 이들은 황폐한 지역 주민들은 건물의 유리창이 몇 군데 깨진 채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보면 멀쩡한 주변마저 파괴하고 싶은 충동으로 인해 결국 예전보다 더 황폐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은 일견 이해되기도 하지만 현실성은 의문시 된다.

사회적 부정행위의 전염 현상을 차단할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안이 있다. 영국 뉴캐슬대학 Melisa

Bateson 연구팀은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전염현상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0주 동안 커피자판기에 자율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넣도록 한 후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봤다. 이 때 커피자판기에 처음 5주 동안에는 꽃의 이미지로 장식했으며, 나머지 5주 동안에는 정면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눈’의 이미지를 장식했다. 그 결과 꽃 이미지에 비해 사람 눈 이미지가 장식될 동안 동전이 3배 이상 늘었다. 부정적인 행동의 사회적 전염일지라도 누군가 감시한다는 인식이 들 땐 도덕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의의 거짓말은 진짜 선한 것일까?

평소 사소한 부정행위는 경제적 이득보다는 심리적 혹은 도덕적 동기에 기인한 경우가 더 많다. 그 중 하나가 ‘자아고갈(ego depletion)’이다. 스탠퍼드 대학의 바바 쉬브(Baba Shiv)와 인디애나 대학의 사샤 페도리킨(Sasha Fedorikin)은 우리 뇌가 일시적인 인지 과부하에 직면하게 되면 쉽게 검은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인자판기에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사람 눈 이미지를 붙여놓자 동전이 3배 이상 늘었다.

상대적인 정신적 고(高)부하 실험집단은 과일샐러드를 선호한 대조집단과 달리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달콤한 초콜릿케이크를 더 선호했다. 즉 부정행위나 건강에 해로운 초콜릿에 대한 충동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성적·정신적 에너지를 모두 고갈시킴으로써 유혹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원인으로 ‘자기기만(self-deception)’이 있는데, 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등학생의 SAT시험과 관련한 실험결과, 부정하게 점수를 획득한 학생들은 그 점수를 자신의 진짜 실력을 반영한 점수라고 스스로 믿었다. 또 이들은 다음번 시험점수를 예측하는 경우에도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다. 문제는 자기기만 행위가 지속될 경우 자신의 본질을 망각한 채 과장과 허풍으로 남들을 현혹시키는 부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30대 남성이 유명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법연수원생이라 사칭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이런 부정행위를 한두번 하다 보면 허상을 현실처럼 믿는 착각에 빠지고, 금전적인 이득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한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길 바라면서 행하는 거짓말이나 부정행위도 있다.

일명 ‘하얀 거짓말’이다. 다이어트에 열심인 아내가 거울을 보면서 체중이 좀체 줄지 않는다고 하소연할 때, 한마디 거든다. ‘당신, 요즘 눈에 띄게 날씬해졌는걸!’ 비록 입바른 소리일지라도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런 거짓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이러한 ‘호의’에 너무 마음을 뺏긴다면 또 다른 부정행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 유명한 신경과학자인 미국 베일러 의대의 리드 몬터규(Read Montague) 교수와 그 동료들에 따르면, 호의는 자신도 모르게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당신, 요즘 눈에 띄게 날씬해졌는걸!’ 하는 입바른 소리는 선의의 하얀 거짓말이다

호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뇌를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으로 촬영하자 쾌감중추가 활성화되며, 연상과 의미와 관련된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복내측 전전두엽피질이 더 활성화 되었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호의를 받게 되면, 우리들의 뇌는 그 사람을 더 좋아하도록 하는 편애감정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근거 없는 편에는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호의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 심해진다고 한다. 사회조직에서 공(公)과 사(私)를 적절히 구분할 줄 아는 균형 잡힌 의식적 행위가 필요한 이유다.

소비심리에 반영된 사소한 부정행위들

짜퉁 소비심리가 대표적인 사소한 부정행위다. 값비싼 명품은 자신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때문에 우리들의 뇌는 명품을 볼 때 유난히 쾌락중추가 활성화된다. 하지만 이 쾌락이나 쾌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기에 좀 더 비싸고 새롭고 특별한 명품을 갈구함으로써 쾌락의 쳇바퀴에 빠지게 된다. 생활수준이 향상된 많은 중상류층들은 0.1퍼센트에 속하는 열망집단인 상류층을 모방하기 위해 명품소비를 늘린다. 상류층 역시 자신들만의 차별성과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더 비싸고 희귀한 제품으로 눈을 돌린다. 끝없는 인간들의 욕망을 보여준다. 문제는 명품이 아닌 짜퉁 브랜드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자 하는데, 짜퉁은 명품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남들에게 알리는 ‘외부 신호화’ 현상을 희석시킨다. 또 실제로 명품 소유자의 이미지나 진품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즉 짜퉁 구매행위는 사소한 부정행위이며, 진품 소유자들과는 정말 다른 행동을 보인다.

프란시스카 지노(Francesca Gino)와 그 동료들이 수행한 2010년 연구결과를 보면, 진품이 아닌 짜퉁을 사용하면 도덕적인 자제력이 약해지며 부정행위 역시 더 수월하게 저질렀다. 실험참가자들

에게 선글라스를 착용하도록 한 후, 이들에게 진품이라는 정보를 준 집단과 짜퉁이라는 정보를 준 집단 그리고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일반 사용자 집단으로 나눈 후, 이들의 부정행위 정도를 관찰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의 비율은 진품 사용자의 30퍼센트와 일반 사용자의 42퍼센트인 반면, 짜퉁 사용자는 두 배 이상인 73퍼센트로 나타났다.

짜퉁은 명품을 통해 남들에게 알리는 ‘외부 신호화’ 현상을 희석시키며 명품 소유자나 진품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손해보험 가입자들이 저지르는 보험금 부당청구 행위 역시 부정한 사례다. 반대로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사소한 부정행위를 통해 손해를 보기도 한다. 신용카드 가입자는 많은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음으로써 연체 등과 같이 사소하게 규칙을 어길 경우, 카드사는 높은 연체이자와 같은 법적 혹은 금전적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또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약관 내역을 소비자들이 대체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알고 수시로 사소한 부정행위를 하기도 한다.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약이나 시술사례 역시 의료기관의 이득을 위한 사소한 부정행위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소하게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정직성을 자극시킬 필요가 있다. 즉 도덕적 각성장치를 만들어 소비자

나 기업 관계자들이 사소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너코드(Honor code)가 대표적인 도덕적 각성장치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과제물을 제출할 때 혹은 시험을 볼 때 지극히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제도다.

자필이력서를 작성할 때 맨 하단에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쓴 후 사인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시험이나 과제물 제출시 정직하게 하겠다는 서약인 아너코드는 부정행위를 줄여준다.

니나 마자르(Nina Mazar)와 덴 에리얼리 연구팀은MIT와 예일대학처럼 아너코드 제도가 없는

집단과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프린스턴대학 재학생들을 비교했다. 비록 아너코드가 항상 도덕적으로 높은 선한 행위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해도 사소한 부정행위를 막아주는 예방주사 역할로써 의미가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아너코드의 경우, 사전에 서약을 받는 경우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성경책이나 십계명을 두고 맹서한 경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 비록 종교가 다르더라도 말이다. 결국 자의든 타의든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사소한 부정행위는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혹은 심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효과가 있다.

심지어는 과도한 법칙금을 적용하는 강력한 도덕적 각성장치를 마련할 때 사회적 부정과 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겠다.

요즘처럼 부정과 비리가 난무할 땐 더 그렇다.

<< 범상규(건국대교수)



우리역사 바로알기

퀴즈대회



언제:
2015년
9월24일(공휴일)
08:00

어디서:
JKS 대강당



상품
노트북, 태블릿 PC
항공권 (한국왕복)
핸드폰, 외장하드

시상
역사왕 ~ 5등 (5명)
초등 10명, 중등 10명
고등 5명, 참가상
행운상



안내 www.kff.or.id/kffking
신청 kff_jkt@naver.com
문의 정찬우 0811 917 7007 정성재 0877 8449 7700

빨리 "참가신청" 하세요!

예상문제 (50문항) 공개!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www.kff.or.id/kffking) → 메일 신청(kff_jkt@naver.com) → 접수번호 받음
마감	2015년 9월 10일 까지 (참가비 없음)
준비	예상(50)문제 (www.kff.or.id/kffking) 다운로드 연습 → "도전! 역사왕" 참가

역사도 배우고, 상품도 가져가세요!

시상 구분	인원	참고	상품	참가자 전원
역사왕 & 2등~5등	5명	최상위 5명	노트북, 태블릿 PC 항공권(한국왕복) 핸드폰, 외장하드	기념 티셔츠 스티커 음료... 등 제공
초등학생 & 중학생	각각 10명	각각 1등~10등	다양한 상품	
고등학생	5명	고교 1등~5등		
참가상	전원	본선 진출자	다양한 상품	
행운상	다수	제비 뽑기		

역사 교재	저자 및 출판사	출제 범위	출제 형식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제1권 & 제4권)	박윤식 저 도서출판 휘선	교재 (제1권 & 제4권), 독도, 인도네시아 (일반상식)	주관식, 객관식, OX 문제
저자 및 교재 소개		http://blog.daum.net/gingko1280/12647797	
교재 기증처	단체 및 학교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땅그랑한인회, 한국문화원, JKs(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UI 한인학생회, UPH 한인학생회	
	종교기관 (가나다 순)	교민교회, 늘푸른교회, 동부교회, 믿음교회, 사랑의교회, 연합교회, 열린교회, 위자야한인교회, 조계종혜인사인도네시아, 주님의교회, 중앙교회, 참빛교회, 한미음교회, 한인성당(땅그랑), 한인성요셉성당, 한인성요셉성당(찌꺼랑)	

주관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후원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협찬



재인도네시아
ROTC 지회

후원언론

K-TV, KBS-World, 테일라인도네시아, 미디어코리아, 인도웹, 일요신문, 한인뉴스, 한인포스트

후원사
(무순)



PT. PENASCOP MARITIM INDONESIA
보신名家



자연으로
PT. WIDE LOGISTICS



2015년9월4일 현재



차이나타운으로 알려진 글로독 (Glodok)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글로독(Glodok)은 자카르타의 고도(古都)에 속한다. 약 400백 년 전 바타비아(Batavia)의 발전과 함께 많은 중국인들은 지금의 글로독 지역에 정착하였다. 대부분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살고 있어서 식민지 시절 글로독은 중국인 마을이라는 뜻의 뽀찌난(Pecinan)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이곳은 대부분 화교로 이루어진 상업사회로 중국 문화는 풍습, 건축, 한약재상 등의 여러 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글로독’이란 말이 순다어로 ‘집의 출입구’를 뜻하는 ‘골로독 (Golodog)’에서 유래되었다.

순다 끌라빠 항구가 순다 왕국의 관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다어를 못 하는 자바사람과 므라유(Melayu)사람들이 ‘g’를 ‘k’로 발음해서 ‘글로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외에 바타

비아 시청(현 역사감옥박물관) 광장 즉, 파따힐라 광장에 있는 분수 소리로부터 ‘글로독’이름이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팔각형인 이 분수대는 1743년에 만들었으나 허물어졌다가 1972년에 재건축되었다. 이 분수에서 맑은 물이 ‘그로족그로족 (grojok grojok)’ 소리를 내면서 쏟아져 흘러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글로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도 한다. 이 분수대는 인도네시아어로 ‘Pancuran’ 이라고 하는데 글로독 사람들이 ‘뽀쨌란 (pancoran)’이라고 불렀다.

바타비아 시절, 글로독은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글로독’이란 지명은 중국에서 온 이민자의 투쟁, 차별과 억압에 반대, 침체, 영광을 상징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1740년에 네덜란드 정

부가 바타비아에 살고 있는 10.000여명의 중국인 남녀노소를 잔인하게 학살했던 어두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80.000여명의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바타비아로 왔다. 그들은 대부분 설탕 공장 노동자였으나 설탕 값이 국제적으로 하락하여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들은 실업자, 부랑자가 되기도 했는데. 이는 바타비아에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인도회사(VOC)가 중국인 입국 제한 규칙을 만들었다. VOC 공무원들은 이 규칙을 이용해서 중국인에게서 세금을 징수했다. 뿐만 아니라 실업자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허가증이 없는 중국인들은 두려움으로 집과 상점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었다. VOC는 이민 허가증이 없는 중국인들을 네덜란드 식민지인 스리랑카로 보냈다. 가는 도중 중국인들을 바다 속에 던진다는 소문이 났으므로 바타비아에 남은 중국인들은 격분했다. 그들은 땅그랑(Tangerang)의 벵벵(Benteng)으로 갈 VOC 군인들을 공격하고, 또 다른 중국인들은 1740년 10월 8일, 꼬따(Kota)를 공격했다. 마침내 1740년 10월 10일 Adrian Volckanier 총독이 중국인 학살 지시를 내렸다. 네덜란드 인들은 중국인을 학살·도둑질·강간하였다. 당시 중국 마을인 깔리 브사르(Kali besar)에서 일어난 반란이 끝나고 나서 VOC가 성벽(시청) 밖에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다. 그 마을은 현재까지 글로독으로 알려진다. 또 1998년 5월에 일어난 폭동과 시위로 시간을 1740년으로 되돌린 듯 꼬따에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학살과 강간 사건이 다시 일어났다. 자카르타를 통해 흐르는 깔리 앙게(Kali Angke) 강은 1740년과 1998년에 일어난 어두운 역사를 품고 침묵의 증인이 되어 흐르고 있다. 혼란이 일어났을 때 중국인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그래서 그 강을 중국어로 ‘빨강다’를 뜻하는 ‘앙게’라고 부른다.

글로독의 꼬뜨냥안 거리에 위치한 승리시장(Pasar Kemenangan)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댄다. 이곳에서 아시아 전통시장의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둥지, 상어 지느러미, 생선, 뱀장어, 뱀, 개구리 등의 지방 특산품과 중국 특산

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동물들은 살아있으며 그 자리에서 죽여서 판매도 한다. 또한 과일, 천, 한약과 자무, 향료, 중국 요리 재료 등도 구입할 수 있다. 거리 곳곳의 노점 상인들은 매우 친절하며 손님들과 관광객들을 환영한다. 자카르타에서 보기도 못한 풍경을 이루고 있어 한번쯤은 그 혼잡 속을 헤집고 걸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1998년 5월 사태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한때는 이 시장의 미래는 불확실해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글로독의 하르꼬 전자상가도 유명하다. 우리나라 용산전자상가처럼.





외국인 인력 고용에 관한 신 노동부장관령(2)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11. 외국인인력 비상고용

기계, 설비 및 장비 등 고장 혹은 비상(Emergency)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 인력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1(한)달 유효하나 연장을 불허하는 RPTKA를 받을 수 있다.

11.1. 외국인인력 비상고용 RPTKA 신청 구비 요건

- 11.1.1. 비상 RPTKA 신청 사유 설명서.
- 11.1.2. 소정 신청서.
- 11.1.3. 사업허가서.
- 11.1.4. “비상사태가 사실이다” 라는 내용의 회사 확인각서.

11.2. 외국인인력 비상고용 RPTKA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

- 11.2.1. 신청 회사 상호 및 주소.
- 11.2.2. 고용예정 외국인 인력의 직책, 인원 및 근무지.

11.3. 외국인인력 비상고용 RPTKA 신청서 법정 처리시한 : 1(일) 근무일.

12. 외국인인력 임시고용

12.1. 외국인인력 임시고용 이유 설명

- 12.1.1. 품질향상 과 산업디자인 향상을 산업기술 혁신 및 이용과 수출 협력을 위한 지도, 교육, 및 훈련 목적.
- 12.1.2.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업용 동영상 촬영 목적.
- 12.1.3. 강연 목적.
- 12.1.4.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본사 및 지사 회의 참석 목적.
- 12.1.5.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자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품질관리 혹은 시찰 목적.
- 12.1.6. 외국인 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테스트 목적 견습 채용.
- 12.1.7. 1(일)회 처리성 업무 수행 목적.

12.1.8. 기계 설치, 전기 설치, 에프터세일즈 서비스, 사업성 조사 목적

제품과 관련된 업무 수행 목적.

12.2. 외국인인력 임시고용 RPTKA 신청 구비 요건

12.2.1. 외국인인력 고용이유 설명.

12.2.2. 소정 신청서.

12.2.3. 사업허가서.

12.2.4. 전체 정관 및 법무부의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12.2.5. 조직도.

12.2.6. 지방관공서 발급 회사소재증명서.

12.2.7. 노동국 발급 등록증.

12.2.8. 회사와 외국인인력 간 체결한 계약서.

12.2.9. 회사의 납세의무자 등록증.

12.3. 외국인인력 임시고용 RPTKA 신청서 기재 내용

12.3.1. 회사 상호 및 주소.

12.3.2. 외국인인력의 직책 및 직무설명서.

12.3.3. 외국인인력 근무지.

12.3.4. 외국인인력 인원.

12.3.5. 고용 기간.

12.4. 외국인인력 임시고용 RPTKA 법정 처리 시한 : 3(삼) 근무일

12.5. 외국인인력 임시고용 RPTKA 유효기간 : 최장 1(일)개월이나, 상기 “12.1.2.항”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업용 동영상 촬영 목적, “12.1.7.항” 1(일)회 처리성 업무 수행 목적 혹은 “12.1.8.항” 기계 설치, 전기 설치, 에프터세일즈 서비스, 사업성 조사 목적 제품과 관련된 업무 수행 목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최장 6(육)개월까지 허용하나 연장을 불허한다.

13. 해양 근무 외국인인력 고용

해양 근무 외국인인력 RPTKA는 중앙정부의 노동부 고용확대 및 인력지도청(Direktorat Jenderal Pembinaan Tenaga Kerja dan

Perluasan Kesempatan Kerja)에 신청한다.

14. 엔터테인먼트 분야 업종 외국인인력 고용

14.1. 엔터테인먼트 분야 업종 외국인인력 RPTKA 신청 구비요건

14.1.1 외국인고용 이유 설명서

14.1.2. 소정 신청서

14.1.3. 사업허가서

14.1.4. 전체 정관 및 법무부의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14.1.5. 회사 조직도.

14.1.6. 지방관공서 발급 회사소재증명서.

14.1.7. 노동국 발급 등록증.

14.1.8. 관할 정부부처의 추천서

14.1.9. 회사의 납세의무자 등록증.

14.2. 엔터테인먼트 분야 업종 외국인인력 RPTKA 신청서 기재 내용

14.2.1. 회사 상호 및 주소.

14.2.2. 외국인인력의 직책 및 직무설명서.

14.2.3. 외국인인력 근무지.

14.2.4. 외국인인력 인원.

14.2.5. 고용 기간.

14.3. 엔터테인먼트 분야 업종 외국인인력 RPTKA 신청서 법정 처리시한 : 3(삼) 근무일.

15. 외국인 가라오케 가수 고용

15.1. 외국인 가라오케 가수 고용 RPTKA 신청 구비요건

15.1.1 외국인고용 이유 설명서

15.1.2. 소정 신청서

15.1.3. 사업허가서

15.1.4. 전체 정관 및 법무부의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15.1.5. 회사 조직도.

15.1.6. 지방관공서 발급 회사소재증명서.

15.1.7. 노동국 발급 등록증.

15.1.8. 회사와 외국인 가라오케 가수 간 체결한 계약서

- 15.1.9. 회사의 납세의무자 등록증.
- 15.2. 외국인 가라오케 가수 고용 RPTKA 신청서 기재 내용
 - 15.2.1. 회사 상호 및 주소.
 - 15.2.2. 외국인인력의 직책 및 직무설명서.
 - 15.2.3. 외국인인력 근무지.
 - 15.2.4. 외국인인력 인원.
 - 15.2.5. 고용 기간.
- 15.3. 외국인 가라오케 가수 고용 RPTKA 신청서 법정 처리시한 : 3(삼) 근무일.
- 15.4. 외국인 가라오케 가수 고용 RPTKA 유효기간은 최장 6(육)개월이며 연장을 불허한다.
- 15.5. 외국인 가라오케 가수 1(한)명 고용 시 내국인 최소 5(오)명을 고용해야 한다.

16. RPTKA 연장

16.1. RPTKA 연장 신청은 외국인 고용지가 2(두) 주(Propinsi)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노동부 고용확대 및 인력지도청(Direktorat Jenderal Pembinaan Tenaga Kerja dan Perluasan Kesempatan Kerja)하며, 변화없이 기존 1(한) 주인 경우에는 주청 노동국에 신청한다. 그러나 주청의 민원실(PTSP)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청 노동국의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한다.

16.2. RPTKA연장 신청 시한은 늦어도 기존 RPTKA 유효기간 종료 30(삼십)일 전에 해야 한다.

16.3. RPTKA 연장 신청 구비요건

- 16.3.1. 외국인인력 고용 이유 설명서.
*이사회원, 감사회원,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은 제외
- 16.3.2. 소정 신청서.
- 16.3.3. 지방관공서 발급 회사소재증명서.
- 16.3.4. 노동국 발급 등록증.

- 16.3.5. 인도네시아 인력 훈련/교육실시 증명서.
- 16.3.6. 기존 RPTKA.
- 16.3.7. 외국인 고용허가서(IMTA)
- 16.3.8. 인도네시아 인력 훈련기금 납부영수증
- 16.3.9. 관계 법규에 따른 관할부처의 추천서

17. RPTKA 내용 변경

17.1. RPTKA 상의 상호,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 직책 혹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원 변경이 필요 시 RPTKA 변경 신청은 중앙정부의 노동부 고용확대 및 인력지도청(Direktorat Jenderal Pembinaan Tenaga Kerja dan Perluasan Kesempatan Kerja)에 한다.

17.2. RPTKA상 상호 변경신청 구비요건

- 17.2.1. RPTKA 변경신청 이유 설명서.
- 17.2.2. 전체 정관 및 법무부의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 17.2.3. 기존 RPTKA
- 17.2.4. 기존 외국인 고용허가서(IMTA).
- 17.2.5. 인도네시아 인력 훈련기금 납부영수증

17.3. RPTKA상 외국인 근로자 근무지 변경신청 구비요건

- 17.3.1. RPTKA 변경신청 이유 설명서.
- 17.3.2. 기존 외국인 고용허가서(IMTA).
- 17.3.3. 지방관공서 발급 회사소재증명서.
- 17.3.4.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 간 체결한 계약서.

17.4. RPTKA상 외국인 근로자 직책 혹은 인원 변경신청 구비요건

- 17.4.1. 변경 신청 이유 설명서.
- 17.4.2. 기존 RPTKA.
- 17.4.3. 회사 조직도.
- 17.4.4. 기존 외국인 고용허가서(IMTA).
- 17.4.5. 인도네시아 인력 훈련기금 납부영수증.

17.5. RPTKA 변경 신청 법정 처리 시한 : 2(이) 근무일.

18. 취업비자 추천서(TA 01) 규정 폐기

RPTKA를 받았을지라도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다시 외국인 근로자 개인 별로 취업목적 비자추천서(TA 01)를 받아야 했던 규정이 2105. 8. 31.자로 폐기되었다.

19. 외국인 고용허가서(IMTA) 보유 의무

회사는 RPTKA를 받고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반드시 IMTA를 받아야 한다. IMTA는 외국인 근로자 개인에게 주는 허가서가 아니고 회사에게 주는 허가서이다.

20. IMTA 연장 의무

아무리 늦어도 IMTA 유효일 만기 30(삼십)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21. 인도네시아인력 훈련기금(DKP-TKA) 지불 의무

외국인 1(한) 명당 월 US\$100.- (미화 백불) 지불 의무가 있다. 1(한)달 미만 시에는 1(한)달로 간주하여 US\$100.- (미화백불)을 지불해야 한다.

22. 외국인 근로자 1(일) 인 1(한) 직책 원칙

외국인 근로자는 다른 직책 혹은 다른 회사에 겸직을 금한다.

23. 거주허가서(KITAP) 외국인 근로자의 IMTA 보유 의무

KITAP 보유자 고용에도 IMTA 보유 의무가 있다.

24. 외국인 근로자 고용 보고 의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최장 7(칠) 근무일 내에 주청 노동국 혹은 시/군 노동국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보고 의무가 있다.

25. 외국인 고용 제한에 대한 대책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1차 산업 및 2차 2차 산업은 정부의 외국인 고용 규제 정책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나, 현지인 직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은 3차 산업인, 금융업체, 무역업체, 용역업체, 엔지니어링업체, 건설업체, 대표사무소 등은 정부의 외국인 고용 규제 정책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업체가 적지 않다.

25.1. 단기적으로는 필수요원은 이사 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등재해서 외국인 1(일)명 고용에 현지인 10(십)명 고용 의무를 면하고,

25.2.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지화가 불가피한 현지 상황이며,

25.3. 상공회의소(KADIN) 및 경영자협회(APINDO) 등 공식 단체를 통해 외국인 1명 고용에 내국인 10명 고용의무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누군가를 존경하는 건 그 누군가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마음이 있어야 하겠지요?

살면서 많은 분을 만나고 그들과 일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만큼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뢰와 존경하는 마음은 사람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래 들어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에 대한 눈이 곱지 않다고 하는데 주말 드라마 <파랑새의 집> 주인공인 한태수도 그렇게 비취 집니다. 가족에게는 한없이 존경받던 아버지이자 남편인 태수는 돈 앞에서 사람들에게 상처주고 무시하고 악행을 일삼는데... 현실에서는 경멸받지 않는 부자, 남에게 상처주지 않는 부자, 존경받는 부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했던 수경은 돈 앞에서 안하무인이 되는 태수에게 일침을 날립니다.

태수가 ‘당신 나 존경한다고 했잖아’ 라고 말하자 “당신이 품위를 잃기 전이었죠.

Itu sebelum kau kehilangan **martabatmu**”

Martabat은 인간의 등급, 지위, 위상 및 위신 (Harga diri) 자존심이라는 뜻을 갖는다.

품위는 직품 또는 직위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뜻한다.

품위 (Martabat), 위엄 (Wibawa), 품 (Gengsi), 자존심 (Harga diri), 지위 (Berkelas) 가 있는 이라는 사람의 위상과 기품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문장에 따라 나누어 예를 들었다.

1) Martabat

[tingkat harkat kemanusiaan, harga diri/ Martabat adalah konsep moralitas yang menyatakan tingkat nilai atau bobot seorang pribadi.]

인간의 가치 즉 품위를 나타내는 단어로 개인의 도덕적 관점에서의 가치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Contoh Kalimat :

-Manusia diciptakan sebagai makhluk bermartabat karena memiliki akal budi.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품위를 갖춘 생명체로 창조되었다.

-Korupsi menghancurkan martabat bangsa. 부정부패는 민족의 위상을 망친다. (도덕적 기준의 가치)

2) Wibawa

[Pembawaan untuk dapat menguasai dan mempengaruhi sehingga dihormati/disegani orang lain melalui sikap dan tingkah laku yg mengandung kepemimpinan dan penuh daya tarik 2. Kekuasaan]

매력적이며 지도자로서의 행동과 태도로 타인의 존경을 받거나 그럴만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로 권위, 신망, 권능 등을 뜻한다.

Contoh Kalimat :

-Sebagai kepala keluarga, seorang pria harus memiliki wibawa di dalam keluarganya. 가장으로서 한사람의 남자로서 반드시 가족의 신망을 받아야 한다. (행동이나 태도로 인해 위상을 갖는)

-Selain memiliki wibawa, seorang pemimpin juga harus berjiwa besar. 위엄을 갖는 것 외에도 리더로서 큰 생각을 가져야 한다.

3) Gengsi

[kehormatan dan pengaruh; harga diri; martabat/gengsi adalah sebuah perasaan takut akan jatuhnya harga diri (makna negatif)]

폼 잡음, 위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자존심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위신있는 척 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부정적인 뜻으로 주로 사용된다.

Contoh Kalimat :

-Seorang senior gengsi mengakui kehebatan juniornya karena takut menurunkan wibawanya. 선배는 위신이 깎일까 싶어 후배들에게 자신의 잘났음을 자랑하며 폼을 잡는다.

-Gengsi tidak akan membuat manusia menjadi sukses, tapi sukses akan menjadikan manusia bergengsi

폼을 잡는다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성공은 폼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4) Harga diri

[kesadaran akan berapa besar nilai yang diberikan kepada diri sendiri]

자존심, 본인 스스로에게 가치를 주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Contoh Kalimat :

-Wanita yang cantik adalah wanita yang dapat menjaga harga dirinya.

아름다운 여성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여성이다.(본인의 가치)

-Mengkritik seorang anak di tempat umum dapat menyakiti harga diri si anak.

대중앞에서 아이를 비평하는 것은 그 아이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다.

2015년 안인회 임원잔조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액(USD)
1	한인회 명예회장	승은호	KORINDO GROUP	2015	19,963
2	한인회 명예고문	김재유	PT. DONG SUNG INDONESIA	2015	5,000
3	한인회 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2015	20,000
4	한인회 수석 부회장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5	10,000
5	한인회 수석 부회장	배도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2015	10,000
6	한인회 부회장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2015	5,000
7	한인회 부회장	김주철	PT. STAR CAMTEX	2015	5,000
8	한인회 부회장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2015	5,000
9	한인회 부회장	김희년	PT. DAEWOO SECURITIES IND.	2015	5,000
10	한인회 부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5	5,000
11	한인회 부회장	배응식	PT. KYUNGSEUNG TRADING IND.	2014/2015	10,000
12	한인회 부회장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2015	5,000
13	한인회 부회장	이재학	PT. KEB HANA BANK	2015	5,000
14	한인회 부회장	이지현	PT. ZIMMOAH MARINE TRANS	2015	5,000
15	한인회 부회장	이진수	PT. SUNG BO JAYA	2015	5,000
16	한인회 부회장	이호덕	PT. VICTOR JAYA RAYA	2015	5,000
17	한인회 부회장	최광수	PT. BIG STAR	2015	5,000
18	한인회 부회장	황의상	PT. SEPULUH SUMBER ANUGERAH	2015	5,000
19	한인회 자문위원	강덕재	PT. LEMBUSWANA PERKASA	2015	1,000
20	한인회 자문위원	강희중	PT. SUNG TECHNOLOGY	2015	1,000
21	한인회 자문위원	김석래	PT. INACON LUHUR PERTIWI	2015	1,000
22	한인회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2015	1,000
23	한인회 자문위원	김영주	PT. DEWA CITRA SEJATI	2015	1,000
24	한인회 자문위원	김우재	PT. KOIN BUMI	2015	1,000
25	한인회 자문위원	박헌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2015	1,000
26	한인회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2015	1,000
27	한인회 자문위원	송재선	PT. PUTRA HANKUK	2015	1,000
28	한인회 자문위원	이승민	YSM & PARTNERS	2015	1,000
29	한인회 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2015	1,000
30	한인회 자문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2015	13,460,000
31	한인회 자문위원	정무웅	코린도 장학재단	2015	1,000
32	한인회 자문위원	최정남	PT. GLOBAL FIBERINDO	2015	1,000
33	한인회 자문위원	현상범	PT. INAMEN JAYA	2015	1,000
34	한인회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2015	1,000
35	한인회 이사	김경국	PT. NES	2015	1,000
36	한인회 이사	김도상	PT. HONGIK INDONESIA	2015	1,000
37	한인회 이사	김상태	PT. SMS GROUP	2015	1,000
38	한인회 이사	김세형	PT. SJ GLOBAL INDONESIA	2015	1,000
39	한인회 이사	김종성	PT. BONGMAN INTERNATIONAL	2013/2014	2,000
40	한인회 이사	김종현	PT. KOIN BUMI	2015	1,000
41	한인회 이사	김현재	PT. TOUR 153	2014/2015	1,986
42	한인회 이사	김희익	PT. EPS INDONESIA	2015	1,000
43	한인회 이사	노승원	PT. SGWICUS INDONESIA	2015	1,000
44	한인회 이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2015	1,000
45	한인회 이사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2015	1,000
46	한인회 이사	서영률	PT. PRATAMA ABADI INDUSTRI	2015	1,000
47	한인회 이사	송판원	PT. KORYE POLYMER JAYA	2015	1,000
48	한인회 이사	신규태	PT. INDO SUNG IL JAYA	2015	1,000
49	한인회 이사	신만기	PT. PARKLAND WORLD INDONESIA	2015	1,000
50	한인회 이사	안상영	PT. DAEHWA LEATHER LESTARI	2015	1,000
51	한인회 이사	안선근	U.I.N UNIVERSITY	2015	1,000
52	한인회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2015	1,000

53	한인회 이사	양 태 화	PT. BOSUNG INDONESIA	2015	1,000
54	한인회 이사	오 세 명	PT. SUNG LIM CHEMICAL	2015	1,000
55	한인회 이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5	1,000
56	한인회 이사	이 상 일	PT. UNGARAN INDAH BUSANA	2015	1,000
57	한인회 이사	이 소 왕	PT. L S W	2015	1,000
58	한인회 이사	이 옥 찬	PT. KORINA SEMARANG	2015	1,000
59	한인회 이사	이 윤 상	PAKUWON GROUP	2015	1,000
60	한인회 이사	이 주 한	PT. MEDISON JAYA RAYA	2014/2015	2,000
61	한인회 이사	이 준 하	PT. DAELIM INDONESIA	2015	1,000
62	한인회 이사	이 지 완	PT. JIN YOUNG	2015	1,000
63	한인회 이사	이 철 훈	PT. INDOBOX UTAMA JAYA	2015	1,000
64	한인회 이사	임 성 필	PT. LSP	2014/2015	2,000
65	한인회 이사	정 철 주	PT. DONG IL INDONESIA	2015	1,000
66	한인회 이사	홍 기 호	PT. AURORA WORLD INDONESIA	2015	1,000
총 금액					US\$ 185,949
					Rp. 13.460.000

2015년 한인회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접수순)

2015년 9월 1일 기준

번호	성 명	납입연도	금 액 (IDR)
1	승 은 호	2015	300,000
2	신 기 업	2015	300,000
3	조 규 철	2015	300,000
4	김 재 민	2015	300,000
5	신 규 태	2015-2016	600,000
6	김 영 환	2013-2015	300,000
7	이 현	2013-2015	300,000
8	최 우 범	2014-2015	300,000
9	최 석 일	2015	300,000
10	오 세 명	2015	300,000
11	김 대 근	2015	1,300,000
12	김 영 울	2015	1,300,000
13	김 창 근	2015	1,300,000
14	조 용 재	2015	1,300,000
15	김 양 임	2015	300,000
16	안 창 섭	2015	300,000
17	HORISON FORBIS HOTEL	2015	3,000,000
18	최 양 기	2015	300,000
19	홍 석 영	2015	300,000
20	강 덕 재	2015	300,000
21	승 진 아	2015	300,000
22	오 세 윤	2015	300,000
23	강 희 중	2015	300,000
24	김 평 수	2015	10,000,000
25	PT. INDOKO SAKTI	2015	1,300,000
26	한 덕 수	2015	300,000
27	박 재 한	2015	300,000
28	배 응 식	2015	300,000
29	이 순 형	2015	300,000
30	이 호 완	2015	300,000
총 금액			Rp.26,700,000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비는 상공회의소의 법인회비(회원제)가 있는 관계로 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2013년 8월부터는 한인회에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 납부하신 법인회비는 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 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Rp. A/C NO: 001-001-1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T +62. 21. 7919. 2006(Rep.) I 070. 4644. 2280(Dir.) F +62. 21. 7919. 2062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나 **한식양**
KANA 가나 RESTOLOUNGE

EVENT 대환영

- 돌잔치, 회식, 신년회, 송년회
- 도시락 쿽서비스, 캐터링

토요일/일요일 20%특별할인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佳肴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918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인인지회사무국장한규성)	0818 890 571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카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카랑 공소)	8911 7547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www.doowang.net | E-mail: doowang@cbn.net.id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한인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강희중 회장 0816 798 221
 사공경 부회장/기획 /문협회장 0816 1909 976
 이일하 부회장/공연/음협회장 겸직 /사무국장 0811 91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미협회원 0878 5480 4815
 이선현 감사/아버지양상블 단장 0811 8120 666
 한경순 사무차장/문협회원 081677634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제경중 0811 830 477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이수진 0858 8870 6856
 문인협회 회장 : 사공경 0816 1909 976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 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 김인순 0819 0592 2421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양상블 단장 : 이선현 0811 8120 666

<촉탁 전문위원>

* 안선근 : 현지단체 교류 0816 1883 223
 * 최석일 :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짜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짜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짜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짜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카시서울(버카시) 8895 7604
 부산횡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신티카 클래식(버카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짜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보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140 1245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보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짜까랑) 8983 6047
 아리랑(짜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가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짜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우스(횃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보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라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	----------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쑤찌까람)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쑤찌까람)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쑤찌까람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아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쉽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폴하우스	0818 901 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미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본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워너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 2515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싱가폴항공.....	021)570 4411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지역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 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나름’이 아닌, ‘다름’

삼성이노베이션두지엄

모든 사용이치는 본사 디자인 디렉터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사진입니다.

INNOMATE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Tel 021.7919.006(Rep) Fax 021.7919.2062



Chung-Dam Beauty Salon



POSCO INDONESIA INTI



KBS Media Center



Haeslay Ninebridge



KIDECO,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and
friend moving towards
the future together

